

한국 YWCA

2020년 11·12월호
NOV · DEC Vol.570

“ 한국YWCA연합회 2021년도 정기총회 ”

일시 2021년 2월 4일(목)
장소 온라인 줌
문의 02-774-9702 koreaywca@ywca.or.kr

 한국 YWCA 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거제	055.682.4950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경주	054.772.8141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고양	031.919.4040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상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주	062.609.1300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특집① 2020년, 변화를 향한 한 발자국을 내딛다
회원YWCA 재구조화, 지역법인 탄생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한국YWCA연합회 신회관 입주

특집② 2020 한국YWCA 20대 뉴스
GO 100, 98주년을 쓰다

여성
가사근로자보호법의 입법을 앞두고

미디어와 사회
소셜 딜레마: 기술이 아닌 우리에게 달렸다



이웃과 함께한 YWCA 성탄

YWCA아카이브에서는 회원YWCA가 성탄절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전개한 성탄절 행사를 기록한 1950년~2000년까지의 사진을 공모하여 총 9작품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1, 2등 작품을 게재한다.



1987년 인천지역 철거민 동네 만석동에 최초로 인천Y가 어린이 놀이방과 공부방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를 봐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인천 Y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놀이방과 공부방에 성탄 추리를 장식하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만석동 광이부리마을 놀이방,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한 성탄절 / 인천YWCA / 1987-12-00



마산YWCA는 성탄절을 기념하며 버스 안내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로 소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국YWCA는 버스 안내원들의 근로환경과 인권에 관심을 갖고 1971년에 '버스 안내원들의 실태 및 문제점'을 연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마산Y는 버스 안내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버스 안내양 초청잔치 / 마산YWCA / 1978-12-28



서울YWCA가 서울YMCA, 서울시와 공동으로 전개한 '크리스마스 바로 지내기 운동'은 사회와 언론의 호응 속에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면 발생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라는 주제로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특히 12월 23일과 24일에는 시민들이 집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권유하는 가두방송과 전단배포를 통해 조용한 크리스마스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가두방송 / 서울YWCA / 1967-12-24

(출처_ YWCA아카이브)

2020. 11·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기후위기 시대 부산YWCA가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위기 탈출 프로젝트-나부터 걷는 Day'를 시작했다. '저탄소 배출을 위한 걷기운동 동참',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피켓을 들고 저탄소 생활에 함께해줄 것을 독려했다.

2021년 1·2월 주요일정

1월 7일	신년예배
1월 9일	2020 Y-틴 영상제
1월 16일	Y-틴 전국협의회
2월 4일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제56권 제6호 통권 570호

2020년 12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유성희

편집 박은실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2020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 이은영
- 05 성탄예배 정의 평화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 김진희

특집① 2020년, 변화를 향한 한 발자국을 내딛다

- 06 ① 회원YWCA 재구조화, 지역법인 탄생 | 한영수
- 08 ②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 편집실
- 10 ③ 한국YWCA연합회 신회관 입주 | 편집실

특집② 2020 한국YWCA 20대 뉴스

- 12 GO 100, 98주년을 쓰다 | 편집실

- 30 여성 가사근로자보호법 입법을 앞두고 | 표대중
- 32 기후위기 2050 탄소중립, 감축행동과 사회전환 전제되어야 | 민정희
- 34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 | 김정수
- 36 미디어와 사회 소셜 딜레마: 기술이 아닌 우리에게 달렸다 | 김은주
- 38 청년토크 2021년 트렌드를 분석하다 | 대학·청년YWCA

- 40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2020년 재난 서사 속의 연대와 구원 | 김선영
- 42 이달의 포커스 가장 첫 여성부총회장 당선, 가능성의 문을 열다 | 김미희
서면 인터뷰: 김은경 목사

- 45 연합회 소식
- 47 회원YWCA 소식
- 56 목차색인

2020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올 한 해가 여전한 코로나의 확산 상황 속에서 벌써 저물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어지러운 사회적 상황 가운데 YWCA는 100년을 향한 조직의 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도전에 직면하여 치열하고도 고단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시민운동단체 혹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윤리성을 요구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해마다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YWCA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며 우리의 가치를 보다 잘 담아낼 수 있는 조직적 변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모든 회원YWCA가 재구조화에 대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변화를 위한 담대하고 지속적인 걸음을 함께해 왔습니다. 올 한해 재구조화라는 큰 변화를 함께 맞부딪혀 같이 만들어가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을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미 여러 지역에서 법인화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법인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운 법인화의 과정을 담담히 인내하고 감당하고 계신 많은 지역의 회원YWCA에 진정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도전에 대해 한마음 한 뜻으로 사명을 감당해나가는 모습이 Y의 저력인듯 합니다.

조직 혁신에 대한 변화와 함께 노후화되어 안전의 문제까지 제기된 연합회 회관에 대한 리뉴얼 작업도 연합회의 오

랜 숙원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마스터리스라는 사업방식을 통해 회관을 멋지게 리모델링하고 새로 입주할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올 한해 우리를 가슴 떨리고 하고 새로운 100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는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며 동역하며 어려움을 나누었던 많은 YWCA의 활동가들이 있었고 모두의 협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멋진 회관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Y의 가치와 정신이 흐르는 활동과 운동으로 채워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엮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이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두와 함께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려봅니다.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 각자가 거두어야 할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Y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좌절이 매일같이 휘몰아치는 작금의 상황이지만 올 한해 하나님이 YWCA를 통해 보여주신,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새 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정의 평화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김진희
목사(애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할 일입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라는 표현이 담긴 정호승의 시 <지푸라기>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지푸라기처럼 여겨졌던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삶이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인간을 ‘Homo Viator’(호모 비아토르), ‘순례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걷는 희망의 사람입니다. 즉 잘못된 가치관과 선택이 빚어놓은 현실에서 돌이켜 정의, 평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 정의로 오시는 예수님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정의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전제조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인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낮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압박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의미를 물어야 하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엉덩이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는 것이 야곱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오만한 인간중심 문명의 엉덩이뼈가 상처를 입고 휘청거리는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새로운 문명을 세울 기회가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문명은 인간과 자연이, 하늘과 땅이 통합된 문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모든 자연 안에 정의가 실현될 때 평화의 세상이 옵니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지향입니다. 해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의 폭력적 구조를 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구조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불의로 점철된 폭력의 구조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 평등의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개혁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 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태어나시도록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3.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생명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Hanna Arendt)는 인간에게는 사멸성에 맞서는 건강한 ‘탄생성’(natality)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용서의 능력’과 ‘약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끊임없이 탄생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YWCA가 새로운 시작을 요청하는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벼랑 끝에 선 자들에게 단명한 지푸라기 한 번 되어 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끼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책임있는 지역운동 위한 기반 마련하다

한영수

지역법인승인 현장심사팀장, 연합회 직전회장


지역법인 설립이 시작된 2020년

2020년은 한국YWCA 98년 역사 가운데 회원YWCA 지역법인 설립이라는 큰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해이다. 2019년 (사)한국YWCA연합회,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의 세 법인이 포함된 한국YWCA는 회원YWCA와 함께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재구조화 방향의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로 2020년 3월 회원YWCA의 자치성과 책임성, 지속가능성, 지역운동성 제고를 위한 재구조화정책이 결정되었고 이후 한국YWCA 세 중앙법인과 회원YWCA는 정책의 실행을 위해 쉽 없이 달려왔다.

연합회는 회원YWCA 재구조화와 부속시설 신운영정책 실행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후원회의 재정 후원으로 회원YWCA 법인 전환을 위한 교육과 실행 지원 전담실무팀을 운영했다. 올 초부터 9개 회원YWCA가 재구조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조직혁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각자 지역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핵심 목적사업을 선정하고 주무부처를 결정한 후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대전, 대구, 안산이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고, 이어 순천, 여수, 목포, 안양이 연합회 승인 후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수원과 청주는 2021년 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심사 과정에서 회원YWCA가 얼마나 큰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법인운영 기반을 갖추는 일에 많은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하고 이사의 책무성과 독자적인 지역운동에 대한 부담이 크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결단으로 재구조화의 첫발을 떼어주신 회원YWCA에 감사할 뿐이다.

이제 독자적 법인격을 갖추고 한국YWCA연합회의 회원단체로 활동하는 법인YWCA가 연합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인이라는 외형만의 변화가 아닌 새롭고도 혁신적인 차원의 조직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실행해 나가는 일, 그리고 연합회와 회원YWCA가 보다 긴밀한 연대와 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해 상호간 노력하는 일, 한국YWCA 운동이 지역기반의 운동으로 생명력을 갖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고 연대하는 일, 아울러 법인화 또는 비법인사단을 준비하는 회원YWCA에 선진사례로 좋은 모델이 되어 주는 일일 것이다.

법인으로의 전환은 변화의 완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다. 한국YWCA의 재구조화 과정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서로 협력하여 극복하며 한국시민사회에도 좋은 본보기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순천·여수·목포·안양YWCA 비전

사단법인 순천YWCA

1946년 전쟁고아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소명의식으로 시작한 순천YWCA는 이제 사단법인으로서 지역을 아우르는 생명세상의 실천자가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정의, 평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회원 여러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순천YWCA 창립총회 회장 인사말 중)



11월 9일(월) 사단법인 순천YWCA 창립총회

사단법인 여수YWCA

여수YWCA는 독자적인 법인 주체로서 책임있는 기독교 여성 시민운동체로서 더 나은 자세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민과 상생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는 일과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존하는 일, 그리고 평화의 사명자로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일들을 더 힘있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수YWCA 창립총회 총회사 중)



11월 16일(월) 사단법인 여수YWCA 창립총회

사단법인 목포YWCA

1947년 창립한 목포YWCA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조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목포YWCA는 독자적인 법인주체로서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따라 책임있는 기독교 여성시민운동체로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생명사랑의 기운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며 목포지역사회에 생명과 평화,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목포YWCA 창립총회 총회사 중)



11월 20일(금) 사단법인 목포YWCA 창립총회

사단법인 안양YWCA

안양YWCA는 1986년 기독교 여성들의 기도모임으로 시작하여 창립된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YWCA운동이 되었습니다. 안양YWCA가 창립된 지 3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양Y는 사회가 바라는 투명성과 공공성, 책무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법인 안양YWCA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알고 성실히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해 온 중점운동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안양YWCA는 지역운동성 강화와 회원과 함께하는 운동 공동체로서의 다짐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안양YWCA 창립총회 회장 인사말 중)



12월 8일(화) 사단법인 안양YWCA 창립총회

변화를 희망하고 실천을 결단하다

편집실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최종보고회가 12월 3일(목) 오후 1시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적 변화와 YWCA 재구조화 등 내적 변화 가운데 지난 5월 말 '한국YWCA 실행위원 연구모임' 제안으로 시작하여 '온보딩 프로젝트(Onboarding Project)'로 모임 이름을 변경하고, 지난 6월 5일(금) 첫 번째 온라인 모임을 가졌다. 이후 최종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총 네 개의 그룹별로 10~12회차시 모임을 운영했다.

지난 6개월의 여정을 마치다

온보딩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그간의 수동적인 의결기능 중심에서 능동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의 변화를 고민하면서, 실행위원회 구성원인 실행위원들이 정책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하여 '온보딩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YWCA혁신기획팀'(1, 2그룹)과 '포스트코로나 YWCA운동기획팀'(3, 4그룹)으로 나누어 YWCA의 구조변화와 운동 방향 등에 대해 실행위원들이 발제하고 논의하면서 YWC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지난 6개월 간 그룹 별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1그룹: 법인 이사회 개편안 제안

YWCA혁신기획팀 1그룹(이꿈이 이은영 실행위원)은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연합회 법인 역할 재정립과 지배구조의 변화설계'를 주제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법인 이사회, 위원회, 법인총회 구조와 기능에 대한 개편안을 제안

했다. 우선 전체 실행위원이 등기이사가 되어 법인이사로서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현 실행위원회가 법인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하여 책임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실행위원들이 법인운영, 경영관리감독(예: 인사위원회/전략기획/예산재무 등)에 참여하고,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을 TF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들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단법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총회원 구성 원칙과 관련하여 법적인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회원Y 법인정관준칙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총회원 구성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청년 대표성 확대를 중요 사안으로 다루고 현재 6명인 청년대표를 직권상대표 2명을 추가해 8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부회장 제도 도입, 청년위원장 위촉 등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2그룹: YWCA 소통과 협력 구조 제안

YWCA혁신기획팀 2그룹(이꿈이 김은경 실행위원)은 '지방분권화 시대, YWCA 재구조화에 따른 YWCA 소통과 협력 구조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왔다. 최종보고회에서 회원Y와의 소통과 재구조화 지원을 위한 실행위원 역할과 자

세 및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회원YWCA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위원이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적 지원자'가 되고, 회원Y를 주체로 세우는 '지지형 연대(Supportive Solidarity)'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내년부터 '1개 회원Y 평생회원 가입 및 회원활동 참여' '회원Y와 소통 프로젝트' 진행, '1개 회원Y 전담 중보기도', '작은 운동사례 만들어보기' 등을 제안했다. 또한 회원Y 재구조화 과정에 실행위원의 지원 역할 모색이 필요하고, 실행위원의 법인이사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실행위원 전원이 연합회 법인등기이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법인등기이사의 범위 설정과(미성년자인 Y턴 회장 제외, 회원Y 법인등기이사로 중복되는 지역대표는 제외 등), 법인 이사 수(현재 35명) 적절성 여부 검토, '실행위원회'가 아닌 '법인이사(회)'로의 명칭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구조화 이후 회원Y와 연합회의 협력과 지역운동 강화를 위해 <광역단위협의회 시범운영> 실시를 제안했다.

3그룹: 포스트코로나 YWCA 운동 제안

포스트코로나 YWCA운동기획팀 3그룹(이꿈이 김은주 실행위원)은 '한국YWCA 100주년을 앞두고 생명, 기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위기와 전환에 대한 대안과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운동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동안 <잉여로서의 생명>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쌍년의 미학> <보이지 않는 여자들> <영화 소설 딜레마>를 통해 생명, 민주주의, 여성, 기술의 문제 등을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YWCA 운동과제를 정리했다. 생명이 위협받는 전 지구적 상황 가운데 YWCA가 기후정의, 재/생산권리, 다양성 회복,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운동 전개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불평등한 여성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한 청년여성의 정치세력화, 돌봄의 사회화, 여성노인공동체 운동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술의존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미디어운동,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영성회복운동 등을 YWCA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4그룹: 팬데믹 이후 YWCA 방향 제안

포스트코로나 YWCA운동기획팀 4그룹(이꿈이 조은영 실행위원)은 '팬데믹 이후 가치의 변화와 새로운 갈등·대립양상과 대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사회적 약자, 청년, 북한이탈주민과 평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 문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장애, 여성, 노인)가 구조적인 재난 불평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YWCA가 이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밀집시설 위주의 집단적 서비스 방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운동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학업 및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YWCA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청년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을 발표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통일 문제가 이슈에서 밀려났으나 YWCA가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취약계층과 더욱 연대할 것과 나와 공동체를 위해 '더 쉽게, 더 따뜻하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를 통해 연합회 실행위원들은 YWCA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공부하며 100주년 이후 지속가능한 건강한 YWCA를 위해 고민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의 결론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로 마쳤다. 실행위원들은 변화 필요성을 '인식'했고,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웠으며 변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다. 그리고 '실천을 결단했기에 이제 남은 것은 '성공적인 변화'다. 🌱



시민운동의 새로운 장, 새로운 공간을 열다

편집실

1968년에 준공한 한국YWCA회관이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사회적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11월 12일(목) 한국YWCA 회관으로 입주했다. 한국YWCA는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 더 많은 사람들과 YWCA 가치와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내적 구조정비와 외적 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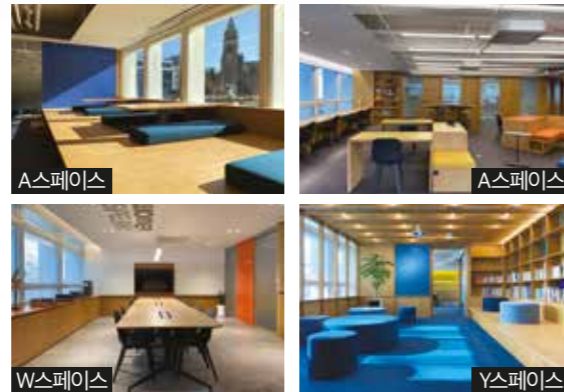
‘근대여성운동의 전당’ 한국YWCA 회관

한국YWCA 회관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왔다. 설립 초창기 YWCA는 건물을 빌려 쓰다가 1934년 서울 서대문구 한옥에 첫 자체 회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간판을 내리는 비운을 겪은 YWCA는 해방 이후 1946년, 지금의 명동에 낡은 목조건물 두 채를 매입했다. 그러나 확장되는 활동에 낡은 회관은 좁았고 새 회관 건축이 절실했다. 이에 회원들의 정성어린 모금과 박에스터 고문총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68년 9월 한국YWCA 회관을 완공하게 되었다.

한국YWCA 회관은 미래세대에 전달할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인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근대여성운동의 전당으로 상징된다. 명동의 중심 1가에 세워진 한국YWCA 회관은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전당을 만들기 위한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일군 YWCA 보물이다.

한국YWCA 100년을 넘어 세대, 지역, 활동, 비전을 엮다

‘근대여성운동의 전당’ 한국YWCA 회관은 새로운 시대,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청년, 여성들과 연대하며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2019년 4월 사회혁신기업인 더함과 한국YWCA연합회관 및 부지를 소셜 커



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10월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한국YWCA 회관 건물의 내외부 리모델링으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리모델링된 회관 전체 공간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간이라는 회관 정체성에 맞게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예술과 문화 콘텐츠, 가치지향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YWCA회관 4층에 위치한 연합회 사무실 공간은 ‘Y.W.C.A’ 주제에 맞춰 Y스페이스(청년활동, 모임), W스페이스 (회의), C스페이스(회의, 기도), A스페이스(강당, 모임)로 이름을 붙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김신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신회관 입주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명동 새 역사, 새로운 출발의 시간: 신회관 입주 감사예배

한국YWCA 회관에서 11월 19일(목) 오후 2시 신회관 입주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로 전국 YWCA 80여 명이 함께 했다. ‘여기까지 도우시다: 회관 52년+새 페이지 명동’을 주제로 한 영상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의 기도와 ‘좋은 종(鐘, bell)이 되는 법’을 주제로 김신애 목사(연합회 실행위원)의 말씀이 있었다. 말씀을 통해 최용신 선생의 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는 종소리가 된 것처럼 YWCA가 앞으로도 좋은 종소리를 내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단단해지고,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대와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종 한국YWCA가 새 공간과 새 시대를 맞아 더욱

좋은 종이 될 것을 격려했다.

원영희 연합회 회장은 인사나눔 시간을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될 때 거점이 되는 공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과 함께 동역하며 위안이 되고 위로를 전하는 일, 그 일들이 한국YWCA가 이 새로운 공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YWCA 98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는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으로 믿고 간구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새 회관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

유튜브 채팅방 축하 메시지

새 공간에서 새로운 백년을 꿈꾸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덕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생생히 접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한운덕**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거듭난 새 회관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saramyu**
 한국YWCA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청주YWCA**
 새 회관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종남**
 새 회관에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게 된 한국YWCA연합회 축하드립니다! **서울YWCA**
 큰 감사의 자리가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강류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며 사역하는 우리 Y가 되길 원합니다. **함희경**
 신회관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한국YWCA가 되길 기도합니다. **신정원**
 페이지명동 한국YWCA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잘했다 칭찬받는 새 페이지를 열어가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황기숙**
 새 회관 입주를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정지운**
 100주년을 앞두고 연합회 회관 마스터리스는 변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전주YWCA**

GO 100, 98주년을 쓰다

2020년 을 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공존한 한 해였다. 98주년을 보내는 한국YWCA가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펼친 '정의, 평화, 생명' 사회를 위한 활동을 20대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본다.

Go 100, 98주년을 쓰다

2020
YWCA News 20

01 회원YWCA 지역법인 탄생

: 시민과 함께, 지역운동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다



대구



대전



안산



순천



여수



목포

올 한해 한국YWCA 역사상 최초로 6개 회원YWCA(대구, 대전, 안산, 순천, 여수, 목포)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한국YWCA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 가운데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조직의 투명성, 자치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조직정비와 혁신을 해오고 있다. 회원YWCA 법적지위 확보 및 법인·비법인사단으로의 전환이 변화의 시작이다.

2020년 3월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원YWCA 재구조화 정책이 의결된 이후 지난 8월 대구, 대전, 안산YWCA의 지역법인 전환이 승인되었고 8월부터 9월에 걸쳐 지자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 또한 목포Y(11월), 수원Y(12월), 순천Y(11월), 여수Y(11월), 안양Y(12월), 청주Y(11월)가 연합회로부터 법인전환을 승인받았고 그중 순천, 여수, 목포YWCA가 12월 지자체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았다.

올해 지역법인 설립이 완료된 6개 회원YWCA는 법인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Go 100, 98주년을 쓰다

2020
YWCA News 20

02 한국YWCA 신회관 입주

: 시민과 함께, 시민운동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한국YWCA회관이 한국YWCA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11월 12일(목) 명동길 73 한국YWCA 회관으로 입주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한국YWCA 회관은 시민 누구나가 모여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1층 로비부터 한국YWCA 역사 발자취를 볼 수 있으며, 한국YWCA연합회 공간은 청(소)년들을 위한 Y스페이스,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W스페이스,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C스페이스, 강연이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인 A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03 새로운 리더십 선출

: 제47대 신임회장단



한국YWCA연합회는 7월 30일(목) 화상회의 줌으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합회 회장과 제1, 제2 부회장을 전자투표로 선출했다. 원영희 연합회 회장, 조은영 제1부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이 제47대 회장단으로서 YWCA가 지속가능한 기독교 여성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으면서, 98년의 역사를 이어주신 하나님과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후배 회장단이 되는 길을 위해 저희 세 명이 먼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100주년을 위한 단단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오늘의 YWCA가 있었다 생각하기에, 그 기도와 헌신의 마음을 저희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Y를 위한 기도와 격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 원영희, 제1부회장 조은영, 제2부회장 이은영 드림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 인사 중)

Go 100, 98주년을 쓰다

2020
 YWCA News 20

04 한국YWCA 100년 역사를 모두와 공유하다

: YWCA아카이브 오픈



www.ywca-archiv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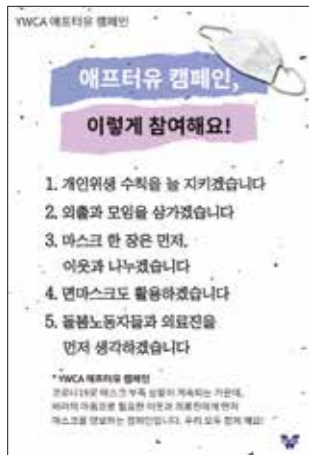
한국YWCA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작년부터 준비해온 YWCA 온라인 기록보관소인 'YWCA아카이브'가 9월 1일(화) 오픈했다. '한국YWCA의 역사적 위상과 유산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목적으로 한국YWCA 역사 기록을 아카이브에 게시해 YWCA를 알리고 그 가치와 정신을 공유한다. YWCA아카이브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해 YWCA 역사기록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위드 코로나

2020
 YWCA News 20

05 YWCA는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 YWCA 애프터유 캠페인



지난 3월 코로나19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된 가운데 한국YWCA는 'YWCA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담은 'YWCA 애프터유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부터 나누겠습니다"라는 'YWCA 애프터유 캠페인'을 통해 마스크가 절실한 이웃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실천을 이어갔고 곳곳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배려와 연대의 물결을 일으켰다. 또한 전국에 있는 회원YWCA에서는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대구YWCA에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각 지역 의료진과 상황실에 간식, 도시락 등을 전달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재난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마스크, 생필품 키트 등을 전달하면서 YWCA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한다는 공동체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위드 코로나

2020
 YWCA News 20

06 언택트 YWCA



한국YWCA는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사회변화 속에서 YWCA 회원,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을 고민하며 모임, 회의, 교육, 캠페인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2월로 예정되었던 정기총회가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총회도 지난 7월 30일(목)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전국 53개 회원 YWCA 대표가 온라인에서 모여 온라인 전자선거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 형식으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사무총장협의회, 실행위원회, 아시아YWCA지역회의, 실무정책협의회 등도 온라인을 통해 개최했으며 민들레넷 교육 프로그램, YWCA 금융·경제교육 강사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도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YWCA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재구조화, 금융경제교육, YWCA기초이해교육 등 언제든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시민들을 만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도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제21대 총선 대응 캠페인, YWCA 사순절 캠페인,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검은 목요일 캠페인, 후쿠시마 9주기 탈핵 불의날 캠페인, 2020 동일임금의 날 댄스챌린지 캠페인 등도 모두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전개되었다.

함께 만나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더 큰 시너지를 내던 Y-틴 청소년 모임도 온라인으로 공간을 옮겼다. 전국YWCA 키다리모임이 온라인 줌에서 이루어졌으며 Y-틴 위원회의, 키다리학교 운영진 워크숍 등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2020 YWCA-YMCA 연합 예배도 온라인 줌에서 드러졌으며, 연합회 신화관 입주 감사 예배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회원YWCA 회원들이 참여하여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정의, 평화, 생명 세상 그리다

2020
YWCA News 20

07 평화의 걸음을 지속하다

: YWCA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한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9월 올해로 4번째 진행되었다. 한라산(2017), 지리산(2018), 태백산(2019)에 이어 올해 설악산 순례가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상 속에서 순례의 의미를 성찰하는 '홀로 걷는 평화순례'로 진행했다. 98명의 평화순례단을 포함해 총 350여 명의 참가자들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홀로 걸으며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10월 15일 유튜브를 통해 '함께 이어가는 순례의 길'을 진행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평화순례 영상을 상영했으며 2020 YWCA 여성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평화갤러리' 한라백두 온라인 사진전(www.ywca-peacegallery.or.kr)을 열어 2017년부터 시작된 평화순례의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평화순례단은 여성평화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2. 시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상처와 고통의 역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동참한다. 3.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행동에 연대한다.

한국YWCA는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2년 남북한과 해외동포 여성들이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오르기를 기도하며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의, 평화, 생명 세상 그리다

2020
YWCA News 20

08 우리는 살고 싶어요

: 기후위기비상행동 캠페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동참했다. 한국YWCA는 중점운동이었던 탈핵생명운동을 넘어 탈핵기후생명운동으로 전환, 기후위기 시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올해 한국에서는 54일 이상의 장마, 연이은 태풍, 폭염 등 기상 이변이 심화되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호주와 미국 서부지역의 대형 산불, 아마존에서도 가뭄과 잦은 산불이 일어났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전 세계적 질병도 기후위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9월 12일 '전국동시다 발기후위기비상행동' 온라인 집회에 전국 40여 개 회원YWCA가

09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을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동일임금의 날' 제정운동을 펼쳐왔다. 그리고 2020년 4월, 20대 국회에서 양성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양성평등임금의 날'이 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YWCA는 앞으로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한국YWCA는 2020년 5월 6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선포하고 5월 6일부터 13일까지 동일임금의 날 기념 'YWCA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회원YWCA와 부속시설 27곳이 참여해 SNS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결을 요구하는 자유로운 퍼포먼스와 함께 '#성별 임금격차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YWCA는 '성별을 이유로 임금격차가 있음'

희망을 갖다, 청년

2020
 YWCA News 20

10 지역, 청년, 가능성

: 로컬프렌들리 in 군산



YWCA 청년들은 지역청년의 지속가능한 삶과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2019년 3월부터 여러 창업교육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2020년 5월 (주)로컬프렌들리를 설립했다. YWCA 청년들로 조직된 로컬프렌들리는 '로컬 커뮤니티 매니지먼트'사로 커뮤니티 파괴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커뮤니티 회복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한다. 현재 군산 원도심에서 커뮤니티호텔을 중심으로 여행자와 군산, 여행자와 지역 소상공인, 그리고 군산 지역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로컬프렌들리는 군산을 경험하고 관계 맺는 체류형 관광

지가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형 숙박공간인 <Who's There(후즈데어)>와 <Who's Next(후즈넥스트)>를 운영한다. 최근 도시재생의 중요한 키워드로 꼽히는 'DIT(Do It Together)' 흐름에 맞춰 세 번의 DIT 프로그램을 군산에서 개최했고, 건축공간연구원 아우리가 개최한 <2020 Grand DIT Festa>에 운영 총괄로 함께 했다.

로컬프렌들리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모토로 커뮤니티를 구상하며, 지역 안에서 지속가능한 청년의 삶을 기대하고 꿈꾼다. 2021년에서 지역 속에서 청년들과 연결을 통해 관계망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11 청소년 새로운 미래를 열다

: 청만세



YWCA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다양한 금융·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씽크머니는 씨티재단의 후원으로 2020년 현재 전국 28개 회원YWCA에서 2만5천여 명, 지금까지 총 55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그 활동이 바로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경제편'으로 Y-

틴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했다. 청소년들이 금융과 5개 주제(경제, 성평등, 청소년 활동, 평화, 환경)의 지역 내 이슈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팀별 협업을 통해 경쟁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미리 경험해보는 값진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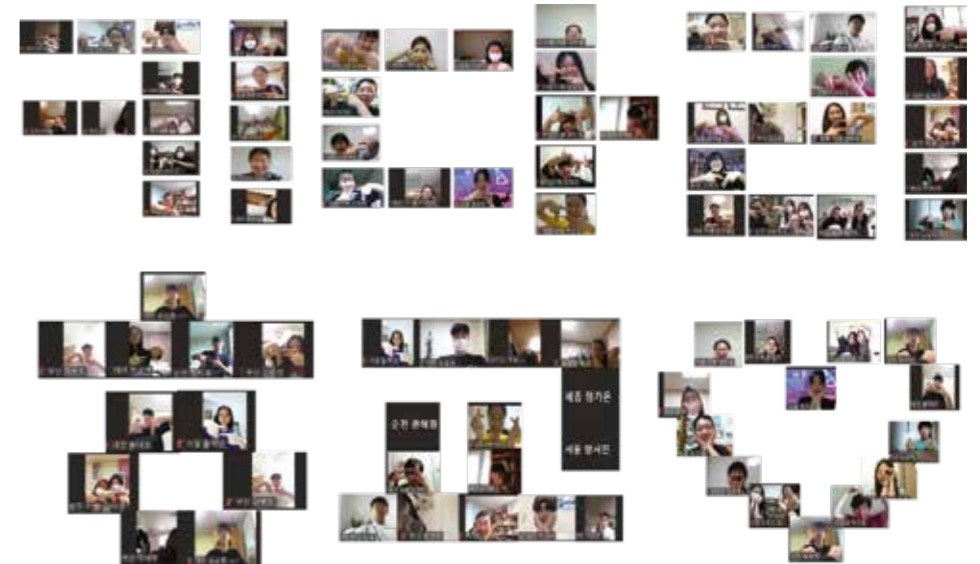
(자세히 들여다보기 p. 26)

희망을 갖다, 청년

2020
 YWCA News 20

12 새로운 희망을 지피우다

: 2020 키다리학교



코로나와 YWCA청소년 운동, 그 사이에서 2020 YWCA 키다리학교 활동이 이어졌다. 여러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 고민은 학업, 진로, 건강(정신건강 포함), 부모와의 관계, 가정 내 문제로 나타났다. 2020년 한국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청소년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할 환경을 주지 못하고, 이에 청소년들은 고민할 기회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합회는 '키다리학교' 연구 TF팀을 구성해 코로나 이후 반드시 변해야 할 키다리학교, 청소년 활동을 위해 1년을 보냈다. 그간 정형화된 키다리학교 활동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사용하며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냈다. 키다리학교 연구 TF팀은 키다리학교 담당 실무활동가가 프로그램 담당자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YWCA 청소년운동 활동가로 함께하길 기대하며, 키다리학교 키쌌(자원활동가 운영진), 크쌌(실무활동가 운영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워크숍, 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연한 활동으로 진행했다. 더이상 키다리학교 운영을 담당실무활동가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 어가지 않도록 교육, 워크숍, 일상활동 전개 방안 논의 등을 지원했다.

이 과정을 통해 8개 지역 키다리학교에서는 키쌌, 크쌌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YWCA미디어운동의 일환으로 '미디어 속 성차별 요소 찾아보기', '지역별 줌zoom 연대 활동',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더욱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문제 등 일상 속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지킴이 프로젝트',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찾기' 활동 등을 전개했다.

2021년에도 키다리학교는 키다리학교 정신과 가치에 따라 시대에 맞는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키다리 활동을 온라인에서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가며, 다양한 정의·평화·생명의 활동을 전개하는 키다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갖다, 청년

2020
 YWCA News 20

13 청년이 꿈꾸는 세상, 미디어를 통해 읽다

: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올해의 대상은 <씨리얼>(CBS유튜브), 최우수상은 <필환경시대의 지구수다>(ubc울산방송), 우수상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그녀의 이름은>(SBS), <휴머니얼>(MBC), <아이들의 학교>(KBS), <유 퀴즈 온 더 블록>(tvN)이 수상했다. 좋은 미디어상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좋은 콘텐츠를 선정하고자 '미디어콘텐츠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상 영역을 확장했다. 또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의 시각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심사위원 6명이 참여했으며 청(소)년 추천단의 작품을 받아 이들이 지향하는 좋은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CBS유튜브채널 <씨리얼>도 청소년이 추천한 작품이다. 아울러 YWCA가 뽑은이라는 의미에 맞게 YWCA청중투표단(YWCA 활동가, 회원)의 문자투표를 통해 최종심사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p. 27~28)

청년심사위원
 참여소감

이다원

작품을 볼 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김민주

청년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손은서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을 심사하는 과정에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까지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유정

심사 과정에 청년들이 함께했다는 것이 너무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신 제작진들과 그러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YWCA! 존경합니다!

박하은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서 뜻깊었으며 심사위원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의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시선으로 작품을 보는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2020
 YWCA News 20

희망을 갖다, 청년

14 보다 나은 세상, 여성 리더십이 필요하다

: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2020년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성지도력을 발휘한 분들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대상에는 전 세계적인 질병위기에 빠른 진단과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젊은지도자상은 영화 <69세>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서 감내해야 하는 시선과 편견에 대한 화두를 던져 인간의 존엄성을 고민하게 한 임선에 감독이, 특별상은 집단성착취영상거래사건의 최초 기록자 추적단 불꽃이 각각 수상했다.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은 각 수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원영희 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시기에도 끊임없이 정의, 평화, 생명 존중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수상자들을 통해 여성의 존재감이 확연히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여성리더십이 필요하며, 한국여성지도자상을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p. 29)

| 토크쇼 |

젊은지도자상 수상자 임선에 감독과의 만남



지난 11월 26일(목)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임선에 감독과 여성, 노인을 말하다'라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오영란 실행위원의 진행으로 영화 <69세>의 짧은 영상으로 토크쇼를 시작했다. 여성 차별과 노인 편견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영화 <69세>를 통해 임 감독은 "그러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슈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놓치지 않을 때 소외된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봄벌레 눈물도 찬란하게 빛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제 저는 어려운 고백을 시작으로 한걸음 한걸음 햇빛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임선에 감독의 용기 있는 걸음을 응원하는 시간이었다.

온라인에서도 Y를 만나다

2020
 YWCA News 20

15 한국YWCA 홈페이지 새단장, 카톡 채널, 웹레터 시작



www.ywca.or.kr

올해 6월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오픈했다. 한국YWCA 주요 소식과 보도자료, 활동소식(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대학·청년, Y-틴, 소비자, 금융·경제교육), 회원YWCA 소식 등을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YWCA웹레터를 시작해 모바일에서도 한국YWCA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톡 채널 신청:
 카톡 친구 검색 창에서 '한국YWCA' 검색

YWCA웹레터 신청:
 YWCA연합회 홈페이지 하단 '뉴스레터 받기' 신청

16 YWCA 온라인 아카데미 오픈

www.ywca-edu.or.kr



한국YWCA는 전국 YWCA 활동가들과 회원들에게 YWCA 목적과 가치, 운동정책에 대한 이해, 시민운동가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0년 7월 YWCA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목적문·역사를 통해 보는 YWCA 이해>, <YWCA 운동정책>, <YWCA 재구조화 이해>, <싱크머니 금융·경제교육> 등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의 새로운 강의를 제공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Y운동을 준비하다

2020
 YWCA News 20

17 2020 한국YWCA연합회 운동정책협의회



2021년 연합회와 회원YWCA의 운동 방향을 확인하고 집중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2020 한국YWCA연합회 운동정책협의회가 11월 30일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었다. 연합회와 회원YWCA 사무총장, 실무활동가 150여 명이 참여해 '코로나 이후 YWCA운동-기후위기, 기독, 젠더, 지역·평화, 청년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논의했다.

YWCA 기후위기 대응(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주제 발제에서 전국단위 지역여성운동단체인 YWCA가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대중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YWCA 기독교여성시민운동(김신애 목사, 연합회 실행위원) 주제 발제에서는 재/생산 권리 운동, 다양성 회복 운동, 청년여성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단위로서 YWCA가 될 것을 강조했다며 YWCA지역·평화운동(임혜순 꾸림 대표, YWCA 지역운동배우기 강사)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주역인 회원YWCA가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이슈를 발굴하고 실천의 단위를 조직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YWCA청년운동의 새길 찾기(김수진 로컬프렌들리 대표, 연합회 대학청년담당)에서는 '로컬 프렌들리'를 통해 YWCA 정신과 가치를 토대로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기 위한 과정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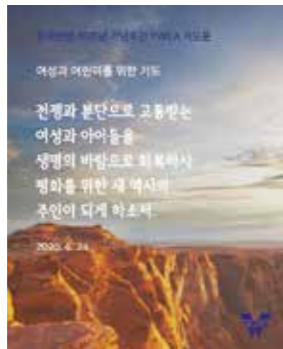
주제별 그룹토의를 통해 기후위기대응활동으로 지역별 '제로웨이스트 운동', 에코페미니즘 운동, 성평등 운동을 위해 기독교성주의 대화모임, 성평등 이해 교육, 평화통일운동을 위한 평화교육, 남남/남북 동질성 회복 프로그램 등을 2021 YWCA 전국단위 공통 실천 과제로 제안했다.

기도와 예배로

2020
 YWCA News 20

18 한국전쟁 70주년 YWCA 기도주간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피스챗린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한 2020년, 한국YWCA는 한반도의 종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염원하며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YWCA는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무기 대신 평화를 위해, 이산가족과 디아스포라를 위해,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세계 분쟁지역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문으로 기도했다.

또한 7월 27일(월)부터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있기를, 분쟁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상처 난 곳에 치유가 있기를 소망하며 회원YWCA와 YWCA 릴레이 평화기도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YWCA는 올해 330개 종교·시민사회 단체, 18개 국제 파트너와 함께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발족하고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에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요청하는 행동을 시작했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전쟁과 평화' 영상을 제작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도와 예배로

2020
 YWCA News 20

19 실천적 영성으로 회복탄력성 있는 공동체 만들기

: YWCA-YMCA 연합예배



올해 세계YWCA-YMCA 기도주간인 11월 8일(일)부터 14일(토) '희망의 빛 : 실천적 영성을 통한 회복탄력성 있는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11월 11일(수) 온라인 줌에서 연합회 주관으로 세계YWCA-YMCA 국제친선 기도주간 연합예배를 드렸다. 김명실 교수(대구영남신학대)가 '주의 영, 주의 생기로 다시 살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포로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YWCA가 희망사역을 지속해나갈 것을 격려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 오늘 날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며 어려운 시기에 더 낮은 곳으로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했다.

20 2020 성탄예배

YWCA 성탄예배가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묵상기도를 통해 '이천년 전 세상에 오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주시기를, 빛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손을 내밀어 희망을 전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YWCA가 평화와 기쁨,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희망의 빛으로 온 세상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사가 11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의·평화·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김진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YWCA가 정의·평화·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따라 나아가길 축원했다. 큰 변화의 와중에 있는 YWCA가 세상에 희망이 될 것을 기도하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2020년의 성탄절

김재화

겨울에도 푸르른 나무가 있다
 어느 해와 똑같이 성탄절 장식 꾸미도록
 케이크도 굽고 선물상자도 종도 큰 별도 달자
 2020년은 특별했으니
 봄은 코로나에 놀라 꽃구경 아닌
 마스크 경쟁에 긴 줄을 섰고
 가을도 겨울도 모두 움츠려
 손 닦기에 바빴으니
 새삼 언쟁하던 입은 가리는 게 마땅하고
 욕심의 손으로 만진 것 있으면
 수고한 비누처럼 거품으로 사라지라
 다시 되돌아보는 인류의 역사
 희망은 늘 고난 속에 잠재하고
 행복은 늘 미래의 숙제였으니
 그때도 지금도 은총의 성탄절
 치유의 서광이 비치는 달에
 또다시 희망의 별 달게 하소서.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_ 경제편(Future Financial City)' 수상작

최우수상 마켓틴(인천YWCA) 십대가 나서는 전통시장 알리기



인천에서 130년 된 전통시장인 '신포시장'의 12개 상점의 상품 홍보지 제작 및 홍보 활동을 한 '마켓틴' 팀이 선정되었다. 예선 통과 후 2달 여 동안 신포시장 내 12개 상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홍보활동을 벌이며 각 상점의 스토리 개발과 상품소개 등을 마케팅 기법을 이용하여 홍보하여 SNS에서 큰 각광을 받았다.

우수상 읍씨(OOPSY, 동패고등학교)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를 위한 캠페인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작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플라스틱 사용은 훨씬 더 증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활용되어 사용되는 비율이 낮다는 문제에 착안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수상 이코이지(수원YWCA)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제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청소년들이 경제를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 시뮬레이션 어플 개발을 목표로 지원하였다. '이코이지'팀은 경제생활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 중 대다수가 금융을 잘 알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경제와 경제생활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몽박사'라는 앱을 개발하여 쉽고 편리하게 금융상품과 경제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장려상 안녕하세요 기자단(베트남 청소년 자물동아리) 생활 속 문화와 역사 중심의 한류 홍보 활동



베트남 호치민시의 청소년 자물동아리팀으로 생활 속에서 역사와 문화 교류를 통한 한류 홍보 활동을 주제로 한글의 우수성과 독도 알리기, 청만세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의 키트를 제작하였다.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수상작

“지금까지 주로 지상과 중심으로 선정되었던 기존의 시상방식을 뛰어넘어 미디어콘텐츠상에 부합하는 다양한 매체제작 환경을 수상작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청년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최종작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_ 이택광 심사위원 심사평 중

대상 CBS유튜브 <씨리얼>



제작 김지수 신혜림 박준형 황민아 심진수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시선으로(See) 진짜 세상을 바라보다(Real)'라는 뜻의 <씨리얼>은 유튜브 24만, 페이스북 17만이 구독하고 있는 뉴미디어 영상 채널로,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과 잊지 말아야 할 문제의식을 청년 세대 눈높이에 맞춰 전달한다. <씨리얼>은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 놓인 약자와 소수자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조명하고 YWCA가 추구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담은 진중한 문제의식 공유와 함께 우리 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를 통한 희망을 보여준다.

최우수상 ubc울산방송 <필환경시대의 지구수다>



연출 조민조 황현규 작가 김규리 김선경

편리하다는 이유로 쉽게 쓰고 버리는 소비문화를 돌아보고, 일상의 습관을 바꾸고자 만들어진 환경 프로그램으로, 방송 제작을 위해 영남권 최초 '제로 웨이스트' 숍을 열고 연중 운영하며 시민실천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환경문제를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공감과 애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공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방송을 통해 지구환경을 아끼는 일상 속 실천과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성평등 부문 우수상 SBS <SBS스페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 그녀의 이름은



연출 이윤민 이병호 글·구성 조정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여자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했던 40년, 편견과 차별로 왜곡된 사회인식에 대해 여전히 진행 중인 그녀들의 항쟁을 조명했다. 민주화투쟁시위에 참여했으나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을 호명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역사와 성차별적 사회 인식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다.

생명 부문 우수상 MBC 창사특집 UHD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연출 김현기 소형준 작가 박민정

<휴머니얼>은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거기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대작 다큐멘터리다. 장대한 화면에는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인간들의 탐욕이 담겨 있다. 지구상의 한 생명체인 동물을 인간의 뜻대로 수단화하는 현실 속에서 동물을 생명 그 자체로 대하는 시선의 전환을 외치며, 생명존중의식을 바탕으로 문명에 길들여진 인간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정의·평화부문 우수상 KBS <다큐 인사이트> 아이들의 학교



연출 고찬유(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 감독)

재일조선학교 100년의 차별과 저항의 기록, 조선학교의 역사와 현재를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 <아이들의 학교>는 차별과 싸워온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직접 제작에 나섰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속에서 한민족의 유산과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노력을 기록하고 지금도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세우려는 목소리를 공론화함으로써 역사적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 부문 우수상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미생 특집



기획 고민구 책임프로듀서 박희연 작가 이연주 외 8명 피디 김민석 외 16명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유쾌한 길거리 퀴즈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퀴즈쇼이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뜻밖의 행복과 따스한 위로를 전한다. 미생 편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청년 현실에 공감하며 미래의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용기와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대상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질병위기대응체계 마련에 큰 분이 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와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며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자체 방역담당자분들과 마스크 착용의 불편을 감수하며 위기극복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국민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사회방역에 힘써줄 것을 부탁하며 "이번 수상이 공중보건과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헌신하고 계신 차세대 여성지도자와 많은 여성활동가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젊은지도자상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삶에 대해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임선애** 영화감독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임선애 감독은 이 시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두를 던지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 내고 있는 주목할 만한 문화·예술계의 차세대 여성리더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며 소외된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예방 및 지원체계 형성에 앞장서고 있는 **추적단 불꽃**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성범죄를 취재하면서 N번방 사건을 최초 신고, 취재한 두 명의 활동가다. 지난 12월 3일에 만난 추적단 불꽃은 "2020년을 끈기, 기록, 연대라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싶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한국YWCA 슬로건이 저희 활동 동력으로도 맞닿아 있다.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와 함께 견뎌겠다"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이것은 범죄라고 말해주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것 같다. YWCA에서 전 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보호법 입법을 앞두고

표대중

연합회 전문위원, 노무법인 길 노무사

11월 4일(금) 국회 앞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환노위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는 이제 그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가사근로자(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사용인'으로 명칭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노동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해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 가입도 불가능했다. 가사서비스가 주로 가정이라는 개인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적노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근로감독행정이 개입하는 것이 과하다는 취지에서 적용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가사서비스는 개인의 사적영역에서만 머무르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YWCA가 1960년대 여성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파출부사업으로 가사서비스를 최초로 공식화한 이후부터 사회 및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는 전문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성장하고 있다.

'가사노동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입법적으로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노동법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서 가사서비스의 공식화 및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가사근로자법의 입법 연혁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YWCA는 지난 10년 간 가사근로자 노동권 확보를 위해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8대 및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가사근로자법이 발의되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정부안으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서형수 의원과 이정미 의원도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아쉽게도 단 한차례의 논의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올해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정부안이 발의되었고,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도 함께 발의되면서 입법이 기대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의 관심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내년으로 넘어갔다.

가사근로자의 권리보호 필요성

한국YWCA는 '돌봄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실태조

사(2015년,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가사근로자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사 28.6%, 간병 28.5%, 육아 23.5%로 나타났는데, 조사 당시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인 62.2%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가사서비스 공식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염좌, 골절, 화상 등 가사노동 관련 주요 7개 안전사고 가운데 1개 이상 경험자는 전체 응답자의 76.1%로 나타났는데, 의료비용의 90% 이상은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가사서비스시장 활성화 지원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인력이 부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신기술을 앞세운 기업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를 개인에게 소개해 주는 알선방식을 넘어서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교육, 훈련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담보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YWCA에 미치는 영향

한국YWCA는 비영리단체로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왔다. 직업소개 방식으로 각 지역 회원Y에서 가사서비스를 알선사업으로 계속해 왔다. 단순한 알선이 아닌 '돌봄과 살림'이라는 브랜드를 통일하고, 자체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균일화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소속된 가사돌보미도 만족하고, YWCA의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가사서비스 시장에 유로직업소개사업자들이 많지만, YWCA의 차별화된 가사돌봄서비스의 경쟁력에는 미치지 못했기에 YWCA는 가사돌보미와 가사서비스이용인 모두 만족하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운영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가사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더이상 YWCA의 브랜드 파워 만으로는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가사서비스를 회원Y에서 유·무료소개 사업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필요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YWCA에서는 가사돌봄서비스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몇몇 회원Y에서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직접고용을 전제로 본격적인 영리사업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가사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이후에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된다면 YWCA의 공헌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령 제정 이후에 시범사업에 YWCA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각 회원YWCA에서 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등록해서 가사돌보미를 직접 고용해서 가사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YWCA가 돌봄정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추구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이제 가시권에 다가왔음을 느낀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제 YWCA는 가사근로자법 입법 활동과 동시에 법제정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50탄소중립, 과감한 감축행동과 사회전환 전제되어야

민정희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2050탄소중립’ 선언, 그러나 명확한 로드맵 없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안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해야 할 계획서) 국민 공청회가 열린 11월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1명의 청년들이 “탄소중립이 2025년 전에 달성되어야 한다”며 정문에 쇠줄로 자신들의 몸을 고정한 채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청년들은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을 비판했다.

청년들의 주장이 다소 급진적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협의체(IPCC)’의 경고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IPCC는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하고 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세계가 배출가능한 탄소량이 420Gt임을 밝혔다. 매년 전 세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42Gt 이고 지금 수준대로 배출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7년밖에 되지 않는다. IPCC에 따르면 2030년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2050년 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66%의 확률로 1.5도 제한이 가능하다.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국 이 이미 2050년 전에 LEDS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 인해 국제시민사회로부터 ‘기후약당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제기준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다행

스럽게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제안했지만 이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석탄발전을 0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DAC(대기 중 탄소포집)과 같은 기술은 현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또한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대규모 해고에 대한 대책, 즉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전환의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계획을 제시했어야 했다.

지난해 발표된 IPCC의 토양에 관한 보고서는 “자동차·공장·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또는 2도 아래로 묶기에는 부족하다”며 토양과 토양에 기반한 농업의 전환이 대기중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LEDS에서도 농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30 탄소 절반 감축과 사회의 대전환

2050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것은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절반 감축이다. 2050년에 가까워져서 한꺼번에 탄소중립

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지금 당장 과감한 감축행동에 돌입해야 하고, 2030년 전에 절반 감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2030 탄소절반 감축과 함께 지금 강원도 삼척과 강릉,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과 제주도 신공항 건설의 중단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3위 해외석탄 투자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던져버려야 한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 없이,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은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하다.

또한 자연을 이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파괴하면서 지금과 같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만드는 경제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환이라면 생태계에 가하는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탄소흡수원의 손실로 이어져 기후위기를 만들어낸 원인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따라서 앞서 말한 행동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시스템을 전환하고 나눔의 경제로 전환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2030년 전에 ‘탄소 절반 감축과 사회의 대전환’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2030 감축목표 강화만 보더라도,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NDC에 대한 논의를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태고, 국회는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IPCC의 권고(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에 부합하도록 기존 목표를 올린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중요하다


한계가 있지만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이나 정부의 2050탄소중립 선언은 16개 부문, 350여개 단체, 지역 기후행동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제안했던 내용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청와대

이 수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로 하여금 2030년 탄소절반 감축계획을 목표로 수립하고,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비롯한 사회전체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알아야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권과 기업에 닿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치행동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에서 기후위기와 대안을 소개하는 영화상영회, 기후관련 독서 소모임, 토론 소모임을 열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런 소모임의 결과가 일상에서의 기후행동으로 연결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행동이라면 일정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 석탄발전소나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석탄발전 투자기관 앞에서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행동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최근에 발생한 기후재난을 보면 이미 상승한 1도도 완전하지 않다. 지금도 수많은 생물종이 대멸종의 위협에 처해 있고 인간 또한 그렇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경고와 정부의 인식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그 격차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성장에 대한 중독, 산업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근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을 중심으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0월 8일(목) 온라인 줌에서 열린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에서 김정수 상임대표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토론하였다.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은?

2020년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었다. 이 땅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한 휴전/정전상태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유지되는 평화체제를 염원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구체화 되었다. 판문점 선언 3조는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며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4단계로 합의하였다.

- ① 남북의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②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③ 종전선언-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 그리고 ④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남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까지 참여하여 논의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국

가와 국가만의 일인가?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는 없는 것일까? 더욱이 한국전쟁과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인 여성들이 평화과정에 참여할 길은 없는 것일까?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채택된 지 20년

1990년대 이후 분쟁지역에서 대규모 조직적 강간이 발생하자 유엔과 국제사회는 무력 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무력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여성과 남성, 소녀·소년, 노인에게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여성평화운동이 무력 분쟁 하 여성인권침해와 보호가 평화와 안보의 주요 문제임을 주장하고, 여성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속적 주장을 펼친 결과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이하 1325 결의안)가 2000년 10월 31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분쟁 하 여성 인권 보호, 예방, 그리고 분쟁 후 구호와 회복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위해 국가들이 노력하도록 권고하였다.

1325 결의안의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에 대한 권고 문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촉진하려는 모든 노력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지역 및 기관 차원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여성 대표의 증원과 분쟁 예방, 관리 및 해결 메커니즘을 회원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적 중재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 대표단과 사절로 더 많은 여성을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관련 행위 주체들이 평화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결의안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유엔은 회원국이 1325 결의안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 수립을 권고하였고, 2005년 덴마크가 최초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한국 정부는 여성시민사회와 여성국회원들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2014년 5월 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을 활용하여 여성 참여를 촉진하려면?

올해는 ‘유엔안보리 1325 대한민국 2기 국가행동계획’(1998-2020)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시작될 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6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1325 3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가 열려 필자도 토론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준비한 3기 국가행동계획은 2기 국가행동계획에 비해 3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하여 인간안보 개념의 도입되고 성 평등과의 연관성

이 명시된 점 둘째, 여성을 전쟁과 무력 분쟁의 피해자에서 평화구축 과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위해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 참여와 권한 강화 지원의 도구로서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의미를 확인한 점 셋째, 여성, 평화, 안보(WPS) 의제를 Global-Regional(동북아시아)-National-Local(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등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여성참여’ 관련 3기 국가행동계획 내용 중 [예방] 영역의 목표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의 성인지 관점 반영(확대)’ 하 행동계획으로 △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산 실시 확대(확대)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 통일, 개발협력 관련 기본계획 수립·보완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계속)을 세부 목표로 담고 있다. 또 [참여] 영역의 목표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로 ‘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정책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의 행동계획으로 △ 국방, 외교, 통일, 치안 분야 고위직 및 위원회 여성 비율 제고(확대) △ 국방부, 경찰청, 남북한 협상 등 정부대표단의 여성 비율 제고(계속) △ 양성평등대사 활동 지원(신규)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예방)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성주류화 강화와 (참여)국방·안보·평화·통일·치안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세부 목표로 수립하고 있지만,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성주류화의 구체화 혹은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 참여 보장과 확대와 같이 여성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매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제도,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3기 국가행동계획 이행 과정에 여성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 요구하고 또 정책 제안을 통해 도달해야 할 과제이다. 2021년 새해부터 여성평화운동은 이 일에 매진할 계획이다. 

소셜 딜레마: 기술이 아닌 우리에게 달렸다

김은주

연합회 실행위원, 한국어성정치연구소장



넷플릭스 다큐 영화<소셜 딜레마> 한 장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트위터, 유튜브, 팜, 핀터레스트, 모질라 랩, 틱톡, 웨이보 등등. 자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어쨌든 세계인구 20억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셜 딜레마(social dilemma)>는 이 플랫폼들을 개발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플랫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시공을 초월한 '연결과 소통, 공감과 연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연결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소셜 딜레마>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반대이다. "우리는 연결하면 할수록 더 파괴된다"는 것이다. 연결하면 할수록, 국경을 넘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선거해킹, 분극화, 과격화 등으로 인한 분열과 혼돈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자기 고발성 메시지이다.

이 영화를 보며 25년 전인 1990년 중반 언저리의 일들이 생각났다. 처음 정보통신이라는 기술이 대중에게 소개되고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던 시기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인터넷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됐었다. 물론 여성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때 '여성 정보화'를 위한 활동들은 여성친화적인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 유토피아에 여성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변하는데 정신이 없었

다. 물론 그때에도 우울한 전망도 있었으나 그건 배제에서 오는 불이익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20년 전에 예측했던 전망을 뛰어넘었다. 암울하고 참담하고 심지어 비극적이다.

<소셜 딜레마>는 자존감을 상실한 한 세대의 출현을 예고한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는 소셜 미디어의 탄생과 함께 성장한 지금의 1-20대들이다. '클릭'을 통해 공부하고, '클릭'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클릭'을 통해 쇼핑도 한다. 소셜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가 그들의 진짜 세상이 되어버린 세대이다. 미국의 10대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5분마다 1만 명의 사람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 자신들이 올린 사진이나 글에 대한 '좋아요' 개수에 일희일비하며 말과 글은 점점 자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하고 '뽀샵'을 한다. 기만과 속임수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마치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처럼 Z세대들은 '좋아요'를 향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매 순간순간 누군가의 평가와 평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불행해진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설득당하고 서슴없이 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전사가 된다. 실패의 경험에서 벗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약해지고 그렇기에 아예 실패의 두려움으로 자기불구화전략을 선택하게 만든다. 심하면 자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우울한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 10

대의 자해율과 자살율이 급증했다. 특히 10대 초반의 소녀들에게서 더 심각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자해입원비율에 있어서 10대 후반은 62% 증가한데 반해 초반은 189% 증가하였다. 자살율에 있어서도 10대 후반은 70% 증가한데 반해 초반은 151% 증가했다. 소셜 미디어가 한 세대를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플랫폼 개발자와 운영자들은 자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과 소통, 공감과 연대'를 통해 선한 사회, 유토피아(utopia)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지 디스토피아(dystopia)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디스토피아는 이미 기술 자체에 내재해 있음을 증언한다. 소셜 미디어는 '중독과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한다. 자전거나 자동차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멈추지만, 소셜 미디어는 사용을 기다리지 않는다. 기필코 사용하게 만든다. 소셜 미디어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심리를 해킹하여 중독시키고 조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셜 미디어는 마약이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능력은 인간의 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 소셜 미디어의 위험성을 증폭시킨다. 컴퓨터의 연산능력이 1960년에 비해 1조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인간의 지능과 감성은 그대로이다.


분명 소셜 미디어는 긍정의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긍정의 힘을 억압하고 디스토피아로 내몰고 있는 것은 플랫폼들이 상업적 이윤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상품과 정보를 가장 빠르고 가장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이다.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미워했던 수많은 '좋아요'와 '클릭들'을 모아 광고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정보와 소통을 매개하는 듯하나, 수많은 광고 노출을 통해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들은 실험실의 쥐나 광고만 보는 좁비로 전락되었다. 가상현실 속에서 무의식적 암시를 통해 아무도 모르

게 사용자들의 실제 행동과 감정을 끌어내고 있다.

플랫폼을 작동시키는 알고리즘(algorithm)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 상업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정치적 올바름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되는 세상은 진짜 현실과 다르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각각의 현실과 정보를 제공한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이나 세계관과 모순된 정보 제공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인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동일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그들만의 진실과 그들만의 현실을 만들게 한다. 지금 우리는 알고리즘의 뒷에 걸려, 누군가에게 가짜뉴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진짜뉴스가 되어가는 세상, 자기들끼리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 객관적 진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탈진실(post truth)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함께 아파하는 현실도 함께 공감하는 진실도 존재하지 않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반성문과도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 <소셜 딜레마>는 지금의 세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곧 전환과 변화를 위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임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의 매트릭스(matrix)에 갇힌 세대들은 매트릭스를 자각하지도, 그렇기에 파괴하지도 못한다.

디스토피아로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알림설정을 끄고 자녀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플랫폼의 상업행위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른 선택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은 현실 세계에 있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 무한경쟁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상세계의 분열과 갈등은 거울에 비친 현실 세계일 뿐이다. 

2021년 트렌드를 분석하다



대학·청년YWCA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2020년을 '도둑 맛있다'고 표현한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잠시 생겼다 끝나는 일이 아닌, 나의 생활과 함께 지속될 상황임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다음 해의 트렌드를 분석해 키워드로 정리한 책이 출간된다. 트렌드를 말하는 책에서조차도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말할 만큼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흔들었다.

개인의 일상만이 아니다. 지역의 YWCA 공간을 중심으로 모여 활동했던 YWCA 청년운동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YWCA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략과 움직임이 필요할 때이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지금, YWCA 청년운동에 방향성을 고민할 때에 참고하면 좋을 만한 2021년 트렌드 키워드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1. Real Me : Searching for My Own Label(레이블링 게임)

현대사회는 한 사람이 여러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멀티 페르소나 속 자신의 진짜 자아(Real Me)를 찾는다. 특히 사회적 접촉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실존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팬데믹 시대에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 현대인이 '내 안의 나',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놀이를

즐기게 되었다. 이 게임은 자신에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딱지(Label)를 붙인 뒤, 해당 유형이 갖는 라이프스타일을 동조하고 추종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정체성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이런 브랜드를 구매하는 걸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역의 인과관계를 성립시킨다. 즉,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정체성 동일시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휴먼터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트렌드가 급부상하면서 우리는 자의든 타의든 언택트²⁾ 시대를 경험했다. 앞으로의 기술은 인간과의 단절이 아니라 인간적 접촉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증대하고 트렌드 변화

속도 역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진 언택트 시대에 인간적인 감성과 공감, '진심이 담긴 인간의 손길' 즉 휴먼터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3. 로컬리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하면서 '로컬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관광수입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내 신혼여행 또한 증가하면서 특별한 국내 여행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는 특별함이 있다기보다 유행하는 것들을 너도나도 따라하는 분위기가 더 크다. 앞으로는 지역의 색을 살릴 수 있는 '로컬리티'를 찾음으로써 국내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역 청년운동 활성화를 위한 YWCA 청년운동에도 '로컬리티'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4. 소비=정치

소비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활동이 되고 있다. 지금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풍부한 소비문화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소비문화를 잘 즐기면서 한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의식 있는 소비자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길 꿈꾸고 있기도 하다. 이제 기업은 고객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대다. 이제는 나만 즐거운 소비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고, 소비를 통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한다.

아쉽다, 브랜딩의 부재

YWCA 역시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며 업무 협업툴 '잔디'와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 등을 활용해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전국에 회원YWCA가 있다는 점도 '로컬리티'를 강화하기에 아주 좋은 요건이다.

위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두 YWCA가 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신임


을 받는 YWCA가 젊은층을 끌어오지 못하는 점은 바로 브랜딩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이 젊은 사업가들의 브랜딩과 만나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그들의 가치를 따르는 팬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다.

'와디즈',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도 이용하고 '브런치-글쓰기 플랫폼', '유튜브-영상 플랫폼'과 같은 젊은층이 주를 이루는 플랫폼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하는 운동은 더 이상 힘이 없다. 많은 사람들을 YWCA라는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감각의 브랜딩과 디자인에 힘써야 할 것이다.

YWCA 청년운동, 2021년에는

YWCA 청년운동이 왜 자꾸 실패할까? 이 문제는 비단 YWCA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스펙'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는다. 지금처럼 대면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면 우리의 청년운동은 기존의 방식대로는 절대 흘러가지 못한다.

앞으로 YWCA 청년운동의 방향도 트렌드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 명의 청년이 YWCA 안에서 모든 활동을 다 참여할 수도 없다.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동을 할 수도, 직접적인 운동이 아닌 펀딩 형태의 운동을 원할 수도 있다. 즉, YWCA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운동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지지하는 형태의 운동을 하고 싶은 청년도 있을 것이다.

'레이블링 게임'과 '소비활동의 정치활동'이라는 두 가지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YWCA 청년운동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운동을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청년과 기획된 운동을 소비하는 청년들로 나눠서 다양한 청년들을 우리의 세계관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 

1) 최근 '둘째미모 김다비(김신영)'나 '유산술(유재석)'과 같이 '부캐시대'가 유행인 것도 '멀티 페르소나' 사회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2) 언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 연결(on)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뜻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2020년 재난 서사 속의 연대와 구원

김선영

평론가, YWCA 좋은미디어상 심사위원

2020 대중문화계 키워드 '재난', '생존'

2020년을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단연 '재난'이다. 연초에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은 곧 전 세계적인 범유행으로 발전했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중문화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를 비롯해 영화 <부산행>의 속편인 <반도>와 <살아있다> 등의 좀비물,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의 크리처물 <스위트홈>까지 아포칼립스물이 유독 큰 호응을 얻었다. tvN <방법>, OCN <경이로운 소문>, 넷플릭스 <보건교사 안은영>과 같이 초자연적 괴물들이 출몰하는 오컬트물에도 재난과 종말의 상상력이 녹아 들어 있다. 여기에 웹시리즈 <가짜 사나이>, KBS <재난탈출 생존왕>, tvN <나는 살아있다> 등 생존 예능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2020년의 대중문화계는 '재난과 생존'의 키워드가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공동체는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같은 재난 소재 콘텐츠의 유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예견했다기보다 기후위기, 환경 재앙과 같은 대재난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의 증후에 가깝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작품들이 2020년의 재난 현실과 의미심장하게 맞물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진다는 데 있다. 즉 '우리 공동체는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흔히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크게 각자도생과 상호연대라는, 두 가지의 대조적 태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연대의 가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세계는 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기보다는 차단과 격리에 더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향한 혐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다. 매우 인상적이게도, 2020년의 재난물은 한층 강한 연대의 서사로 이 같은 현실의 폭력에 대응한다.

대표적 사례로 좀비 아포칼립스 서사를 조선 시대 배경으로 옮겨온 <킹덤>은 엄격한 신분제의 장벽 때문에 오히려 연대의 가치를 더 강조할 수 있었다. 눈여겨볼 지점은 연대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주체들이다. 보통의 재난물에서 영웅적 주인공의 활약이 크게 부각되던 것과 달리, 최근 작품들은 주로 평범한 소시민과 약자들의 연대를 그린다. 가령 영화 <반도>는 해군 특전 대위 출신으로 기존 재난물의 히어로가 될만한 재질을 지닌 정석(강동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그의 영웅적 면모가 아니라 타인과의 강한 유대에 초점을 맞춘다. 4년 전 좀비 바이러스로 뒤덮인 한국을 가까스로 벗어났다가 모종의 임무를 띠고 돌아온 정석은 위기 상황에서 민정(이정현)의 가족을 만난다. 여자아이 둘,



노인, 그리고 여성으로 구성된 민정의 가족은 전형적인 재난 취약계층임에도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정석은 그들과 함께 반도를 탈출하고자 한다. 이들의 반대편에는 각자도생을 넘어 약육강식의 논리를 설파하는 황중사(김민재) 일당이 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의 땅에서 정석과 민정 가족의 연대는 황중사 일당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을 이겨내며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출구의 희망이 된다.

<스위트홈> 타인과 공존하는 길을 택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재난물 가운데 제일 흥미로운 작품은 <스위트홈>이다.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감염으로 인해 인간들이 하나둘 괴물로 변해가면서 문명이 초토화되어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무너져 가는 낡은 아파트 그린홈 거주자들의 생존을 위한 사투를 따라간다.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끔찍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현수(송강), 방화범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악인을 처단하는 살인청부업자가 된 상욱(이진욱), 고아 출신의 고등학생은 유(고민시), 시한부 환자 길섭(김갑수), 천식을 앓는 간병인 유리(고윤정), 하반신 장애를 지닌 두식(김상호) 등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고립되고 소외된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 앞에서 역으로 단절을 벗어나 타인과 공존하는 길을 택한다. 말하자면 <스위트홈>은 앞서 언급한 2020년 재난물의 질문, 즉 '공동체는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장 적극적으로 '연대'라 답하는 작품이다. "살아남은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부디 1층으로 내려와 주세요." 냉철한 전략가적 면모 덕에 그린홈 생존자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된 은혁(이도현)이 아파트 안내 방송을 통해, 각자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거주자들을 향해서 건네는 말은 이 드라마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 주요 인물들은 은혁의 말처럼 방바닥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한다. 세상에 상처받고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었던 현수는 괴물로부터 위협당하는 어린아이들을 구하려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무장했던 두식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 무기를 만든다.

그리하여 1층에 하나둘 모인 생존자들은 남은 식량을 나누고 상호격려하며 일종의 재난공동체를 형성해나간다. 부모를 잃은 어린 남매가 공동의 돌봄 아래 놓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은 서로를 불신하고 갈등했던 재난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지점은 바로 옆에 있던 이가 감염자가 되어 언제든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인간성을 모두 잃기 직전까지 기다려주는 태도에 있다. 기존의 감염재난물이나 좀비 아포칼립스물은 증상의 빠른 진행 속도로 인해 감염자들과 비감염자 사이에 재빨리 명확한 절취선이 그어진다. 반면 감염되어도 '괴물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이 작품의 독특한 설정은 공동체가 인간과 괴물의 경계를 질문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준다.

예컨대 차츰 '괴물화'되어 가는 현수의 존재는 처음엔 생존자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지만, 주민들 대신 위험한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곧 공동체의 반성을 이끌어낸다. 남은 자들도 점점 이타적으로 바뀌어 간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나니 너희가 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의 친구라." 극 초반 이웃을 구하기 위해 괴물과 맞섰던 국어 교사 재현(김남희)이 신을 향해 빌었던 연대의 기도는 마지막에 이르러, 절망적인 시대를 향한 이 드라마의 간절한 기원으로 다가오게 된다. 실제로 재난공동체의 공고한 연대와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스위트홈>의 독특한 설정은 크리처 아포칼립스물의 화려한 스펙터클이 주는 쾌감에 익숙한 서구의 시청자들에게도 감동적인 차별점으로 호평받고 있다.

좋은 드라마는 현실의 그림자를 정확하게 응시한다. 2020년의 재난물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둠이 짙게 드리운 이 시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가능성의 문을 열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 평등과 포용으로

김미희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총무



9월 28일 열린 105회 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은경 목사 (출처 뉴스앤조이 이은혜)

독교의 근본은 예수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대안, 여성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세계를 상상하셨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현실에 질문을 던지셨다. 로마 제국이 꿈꾸는 팍스 로마나(Pax Romana)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다. 통치의 방식도 지배가 아닌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은 여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몬의 장모가 좋은 본보기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달라졌고, 섬김으로 예수의 길을 따랐던 여성들을 통해 예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의 대안은 역시 여성이다. 권김현영 선생은 다음과 같은 여성을 통하여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여성을 대표할 수 없으며, 최초의 여성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여성 집단 전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들이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성적 타자이자 사회적 약자라는 여성의 처지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 226)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비(非)백인 부통령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었다. 전 세계 여성들은 해리스 당선자의 연설에 공감하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평등과 자유와 정의를 위해 투쟁과 희생으로 길을 닦아온 여성들과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오늘의 여성들이 있었기에 유리천장을 깨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연설에서 해리스 당선자는 “제가 부통령직을 수행하는 첫 여성일지라도,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젊은 여성들을 가능성의 문으로 인도하였다.

기장 교단 최초 여성 부총회장이 당선되기까지

해리스 당선자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종교계에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며 스스로 몸을 일으켜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올해 9월에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105회 총회에서 김은경 목사가 기장 교단 최초로 목사부총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목사 부총회장이 다음 총회 시 총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기장 교단 최초 여성 목사총회장의 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 초기부터 기장 교단 최초 여성 목사부총회장 후보인 김은경 목사에게 많은 관심이 쏠린 까닭이기도 하다.

기장 교단은 여성들의 연대로 1974년에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통과되었고, 1977년에 1호 여성 목사가 탄생했으며, 올 2020년에 첫 여성 목사총회장이라는 가능성의 문을 연 교단이 되었다. 올해 예장 합동총회에서는 여전히 비성서적, 반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한 반면, 기장 교단은 김은경 목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교단이요,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는 교단이 된 것이다.


“한 아이가 자라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위계와 연고를 중시

하는 남성중심주의 한국사회에서 그것도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은경 목사가 부총회장이 되기까지 기장 교단 안에서는 구조 개혁, 제도 마련,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노력들이 계속 되어왔다. 여성연대(여교역자회, 여성노회, 여장로회, 한신여동문회)를 조직하여 일찍부터 함께 연대하였고, 교단 내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들의 지도력 확대와 교단의 조직과 내용을 평등, 평화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며, 교회 구조를 양성평등적인 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김은경 목사의 개인적인 노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2000년 목사 안수를 받은 김은경 목사는 민주화 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지역사회운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익산중앙교회 담임목사로서 총회와 노회와 현재 전국여교역자회 회장으로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왔다. 김은경 목사는 부총회장 연설에서 “지금엔 하나님의 사인과 뜻을 밝히 알아서 변화해야 하는 때이며, 생명과 평화의 씨를 심어 의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초 여성 목사부총회장의 당선은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남성들이 쌓아놓은 차별과 배제라는 경계와 장벽을 넘어 평등과 포용으로 나아가게 한다. 더 나아가서 첫 여성 목사 부총회장이라는 상징성은 기장 교단과 교단 너머 많은 여성들에게 가능성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김은경 목사를 생각하면 ‘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물은 낮은 곳을 지향하며 흐르고 흘러 만물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교단 안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시대적 과제와 첫 여성 목사부총회장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겠지만, 확실하는 바는 코로나19 이후 생명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시대에 평등주의 원칙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섬김의 리더십은 김은경 목사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터뷰 | 김은경 목사

선언적인 여성 참여가 아닌, 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5회 총회에서 김은경 목사(익산중앙교회)가 가장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010년 제5대 익산YWCA 회장을 역임한 김은경 목사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 축하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소감과 부총회장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 ▲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회를 보며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소유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더욱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정신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나눔과 섬김의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의와 평화는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주제와 상생하는 것으로, 인간과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길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능력으로 성평등한 세상의 지평을 넓혀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목사님께서 이미 2018년 '최초의 여성 목사로서 익산노회장에 당선되신 바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 내 여성 참여가 무슨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거짓에 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단은 이미 모든 차별을 깨뜨리고 장벽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선언적인 '여성의 참여'가 아니라 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까지도 함께 서 있었던 여성들은 진리와 사랑의 실천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력으로 공의롭고 성평등한 권력구조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길을 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남여고 시절 <씨알의 소리>에 글이 당선되면서 함석헌 선생을 만나고, 기독교청년운동으로 YWCA 활동을 시작, 이후 제5대 익산YWCA 회장을 역임(2010)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YWCA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 ▲ 저는 YWCA 시절 조아라 회장님을 만나며 여성지도력을 경험했습니다. 진리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렸으나 여성권익을 위해서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일을 진행하셨고 Y회원들과 직원들을 향한 사랑 또한 지극하셨던 조아라 회장님과 이애신 총무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담대한 믿음의 사역이 YWCA의 역사입니다.
- 2000년도 목사로 임직하시기 전까지도 민주화운동, 평화 통일운동, 이주여성들을 위한 활동 등을 이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나라'가 무엇인지 나누어주세요.
- ▲ 분단의 문제는 오늘날의 현실문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냉전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의한 사회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며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돌봄과 섬김, 나눔과 평등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깁니다.
-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해 일하는 YWCA에 대한 기대를 나누어주세요.
- ▲ YWCA가 젊은 여성지도력을 적극 참여시켜 성평등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한미미 세계Y 부회장, 원영희 세계Y 공천위원 연임을 축하하며 한반도의 생명, 평화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9차 YWCA 세계대회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연대' 결의문이 통과되어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세계YWCA의 여성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연합회 소식

YWCA 성탄예배

YWCA 성탄예배가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었다. '정의·평화·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김진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YWCA가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P.5)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10월 8일(목)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결의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정수 상임대표(평화를 만드는여성회)가 강의했다. 회원YWCA 자원·실무활동가, 길평포럼단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과 1325결의문 한국국가행동 3기의 방향을 살펴보고 YWCA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를 토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P.34~35)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위한 집담회

기후위기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YWCA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YWCA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위한 집담회'가 세 차례에 걸쳐 열렸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집담회는 10월 21일(수) 연합회 활동가와 실행위원이 참여했고 11월 18일(수)에는 52개 회원Y 사무총장과 회장단, 11월 23일(월)에는 52개 회원Y 활동가들이 참여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YWCA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정책들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세계YWCA-YMCA 기도주간 및 연합예배



연합회가 주관한 세계YWCA-YMCA 국제친선 기도주간 연합예배가 '희망의 빛: 실천적 영성을 통한 회복탄력성 있는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11일(수)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김명실 교수(대구영남신학대)가 '주의 영, 주의 생기로 다시 살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전국연맹의 이사, 위원, 활동가 100여 명이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취약계층과 이웃들

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견뎌내야 하는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희망과 연대 실천을 다짐하며 함께 기도했다.

온라인사진전 'YWCA평화갤러리' 오픈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온라인 평화사진전 'YWCA평화갤러리'가 지난 11월 16일(월) 오픈했다. 창립 95주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여성평화순례의 걸음을 연도별로 담았으며, 그간 사업의 의미와 순례내용을 담은 영상을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한라산, 2018년 지리산, 2019년 태백산, 2020년 홀로 걷는 평화순례의 감동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다. 홈페이지(www.ywca-peacegallery.or.kr)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통해 댓글과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신회관 입주 감사예배



한국YWCA 신회관 입주 감사예배가 11월 19일(목) 한국YWCA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며 전국YWCA 80여 명이 함께 했다.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장의 기도와 '좋은 종(鐘, bell)이 되는 법'을 주제로 김신애 목사(연합회 실행위원)가 말씀을 전했다. YWCA가 열린 공간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P.10~11)

제3회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



제3회 새로운 미래를 여는 YWCA 금융·경제교육 우수강의 경진대회가 11월 24일(화) 연합회 회관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새로운 금융·경제교육 콘텐츠와 교수법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최지혜 학생이 'Z세대 청소년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을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상명대학교(황은서, 박은정, 이효정) 팀이 동일 주제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 통해 지역 내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세종YWCA가 우수 회원YWCA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도 교육이 가능

연합회 소식

한 모든 대상에게 경제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세종 영명보육원이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자와의 만남

올해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임선에 영화 감독과의 만남이 11월 26일(목) 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임선에 감독과 여성, 노인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임 감독은 영화 <69세>의 주제인 여성 차별과 노인 편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YWCA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은 수상자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2020 한국YWCA 운동정책협의회

한국YWCA 운동정책협의회가 11월 30일(월) 온라인 줌에서 진행되었다. 2021년 연합회와 회원YWCA의 운동 방향을 확인하고 집중 과제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로 연합회와 회원YWCA 사무총장, 실무활동가 15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YWCA운동-기후 위기, 기독, 젠더, 지역-평화,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연합회 실행위원 은보딩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연합회 실행위원 은보딩 프로젝트 최종보고회가 12월 3일(목)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지난 6월부터 네 개의 그룹이 YWCA 조직, 소통구조, 운동방향 등을 주제로 10-12차시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했다. 각 그룹은 법인이사회 개편안, 소통과 협력 구조, 포스트코로나 YWCA 운동 및 활동방향 등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P.8-9)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이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온라인 줌에서 열렸다. 원영희 연합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김은주 심사위원장), 심사보고(이택광 심사위원), 심사소감나눔(김민주 청년심사위원)과 시상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의 대상은 <씨리얼>(CBS유튜브), 최우수상은 <필환경시대의 지구수다>(ubc울산방송), 우수상에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집-그녀의 이름은>(SBS), <휴머니탈>(MBC), <아이들의 학교>(KBS), <유 퀴즈 온 더 블럭>(tvN)이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P.27-28)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0. 10. 1 ~ 2020. 11.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박은희, 성현숙, 정현주, 김병찬, 이주영, 이혜련, 이희정, 임정임, 배정미	531,000
회원YWCA	안양YWCA, 제주YWCA, 대구YWCA, 남양주YWCA, 부산YWCA	2,010,000
10월~11월 모금액		2,541,000
누계		14,419,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0. 10. 1 ~ 2020. 11.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2020. 10. 1 ~ 2020. 11. 30)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Y),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착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b, 이지윤, 이찬형, 이천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산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3,195,000
개인 기부	유성희, 조임근, 익명	53,500
회원YWCA	군산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전주YWCA, 창원YWCA, 춘천YWCA	1,428,690
협력 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한양대여성교회	260,000
합계		4,937,190

회원YWCA 소식

경기지역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 결과보고회



고양YWCA는 11월 6일(금) 일산서구청 여성커뮤니티센터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디지털사회를 위하여'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모니터링단, 관계부처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보고를 통해 디지털 격차, 디지털 소외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 및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고양YWCA는 이후 정책변화 등에 대한 내용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생활정치학교 소모임



남양주YWCA는 10월 17일(토) 생활정치학교 소모임을 진행했다. 생활정치학교 10회 교육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교육 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변화 등을 발표하고 '성평등 SNS챌린지'를 진행하여 성평등과 관련한 피켓을 만들어 올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생활 속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YWCA

강은진 주임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취업교육

수원YWCA는 9월 2일(수)부터 11월 27일(금)까지 결혼이민자 17명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2급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미지메이킹과 동기부여 내용으로 취업 기초소양교육 2회, 정



리수납 2급 자격취득과정 5회로 이루어졌다. 수원YWCA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개인 역량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높여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안산시민 플라스틱제로 캠페인



안산YWCA는 10월 한 달간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를 주제로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제로를 실천한 사진을 SNS에 인증하는 온라인 방식과 거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스포츠 활동인 '플로깅'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약 2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위한 시민실천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꿈 찾기 여성진로페스티벌



안양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꿈을 찾기 위한 여성진로페스티벌을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진로직종과 교육강좌 소개, 구인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졌으며 26일(목)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교육

회원YWCA 소식

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해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안양시 여성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힐링데이



의정부YWCA는 11월 5일(목)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로 '힐링데이'를 진행했다. 올해 구직상담과 구직등록을 한 여성들, 단기특강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원예를 통해 소통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또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실시하는 여성 일자리사업을 알리며 취업 정보를 공유했다. 의정부YWCA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소비자교육



하남YWCA는 10월 8일(목)에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 권리와 의무,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풍부한 사례와 정보 전달로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다.

동부지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해양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거제YWCA는 대계해변과 사곡해수욕장 등에서 해양환경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10회 중 5회를 전개했다. '환경재단-지구쓰담캠페인 with 코카-콜라' 후원으로 진행한 이번 활동에서는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거제YWCA는 지속적인 해양환경정화활동에 힘쓸 것이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일일드라이브 브런치 행사



김해YWCA는 10월 29일(목) 김해YWCA 앞에서 홀로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일일 드라이브스루 브런치 행사'를 진행했다. 매년 일일커피테리아를 통해 모금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드라이브스루로 방식을 변경했다. 이날 마련된 기금을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어르신들에게 내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과 농협은행 김해시지부에서도 내의 기부에 적극 동참했다. 김해YWC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돌봄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코로나19 극복 마켓

대구YWCA는 11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코로나19 극복 마켓'을 운영했다. '대구YWCA와 함께 다시 한 번 힘내라 대구!'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착한 소비와 나눔을 위해 마련했다. 또한 '온택트 힘내라 대구! 코



로나19 극복 경제살리기 한걸음 챌린지' 행사와 연계하여 대구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해 뜻을 함께 했다.

마산YWCA

이애라 사무총장

청소년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마산YWCA는 11월 3일(화) 마산YWCA 강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청소년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다. 바자회와 더불어 양성평등주간 문화마당을 함께 진행해 일 상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알렸다.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할 바자회 수익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마련된 장학금은 2021년 정기총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YWCA

여진경 부장

저탄소 생활을 위한 부산시민 챌린지 '나부터 걷는 Day!'



부산YWCA는 기후위기 속 저탄소 배출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1월 10일(화) 2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저탄소 생활 실천 의지와 다짐을 담은 기후위기성명서 발표와 발대식을 열고 부산역 광장까지 행진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구환경을 살리자는 문구가 담긴 피켓으로 홍보하며 저탄소 생활을 위한 부산 시민 챌린지 동참을 촉구했다. SNS 계정에 걸는 사진, 부산Y 인스타그램을 해시태그 해 주시고 환경운동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한 후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생활 실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사천YWCA는 사천시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총 9회기) 어린이집 원아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진행했다.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해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생태 하천 살리는 유용한 미생물(EM)발효액 뿌리기



양산YWCA는 10월 12일(월), 28일(수) 양산시 환경관리과 직원들과 함께 신기천 및 북부천에서 EM발효액 뿌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EM은 악취 제거 및 수질 정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생태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M 뿌리기 행사에 동참한 관계자는 "EM발효액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EM발효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

울산YWCA

권한별 간사

문화탐방활동



회원YWCA 소식

울산YWCA학업중단예방센터가 제주도에서 1박 2일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탐방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는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학업 및 진학준비로 인해 지쳐있는 학생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진주YWCA

김은주 팀장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토론회



진주YWCA는 11월 17일(화) 진주YWCA에서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먹거리 정책의 현황,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정책입안 모색,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로컬푸드 생태계 조성 제안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진주YWCA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해 농민, 소비자, 유통주체, 정책입안자 등과 네트워크를 이어가고자 한다.

진해YWCA

이재경 사무총장

이사회 및 재구조화 연구모임



진해YWCA는 11월 10일(화) 이사회 및 법인·비법인사단 전환 연구모임을 가졌다. 자원·실무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특별 기도와 함께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운동 방향성, 재구조화 이후 행정변화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을 통해 YWCA는 회원 즉 사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코로나 이후 변화에 대응하며 회원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열띤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창원YWCA

박선민 간사

2020년 윤리적 소비에 관한 경남 소비자 트렌드 토론회



창원YWCA는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서 경남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이후의 경남도민 소비실태 변화'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윤리적 소비에 관한 경남 소비자 트렌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남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을 포함하여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단체 대표 및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소비 트렌드 위치를 파악하고, 윤리적 소비를 막는 방해 요소를 진단하여 경남의 윤리적 소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씽크머니 특강 교육



통영YWCA는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하고 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년 씽크머니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10월 14일(수) 사랑초 총 14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7일(화) 총 5학년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배우고 체험하는 씽크머니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질의 금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 저축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르고 개인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도 씽크머니 교육을 특화하여 도서지역 및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씽크머니 금융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청소년이 만든 도시락 독거어르신께 전달



포항YWCA는 10월 17일(토), 11월 7일(토)에 경상북도 비영리민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50여 가구에 전달했다. 청소년들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북부지역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이사·위원 워크숍



강릉YWCA는 11월 9일(월) '지금, 다시 시작'을 주제로 강릉YWCA 하반기 이사·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사·위원들은 1988년 창립 이래 쉽 없이 달려온 30여 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지금, 다시 시작'의 제목처럼 YWCA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새롭게 시작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동해YWCA

전민지 팀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자 양성과정

동해YWCA는 10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동해YWCA 교육장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신규자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19명 모두 관리자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생



들은 동해YWCA 돌봄과살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채용하여 내년부터 함께 할 예정이다.

서울YWCA

성지희 팀장

단행본 <성서 속 여성이 보내온 편지> 출간



서울YWCA는 기독교여성주의를 다룬 단행본 <성서 속 여성이 보내온 편지>(백소영 저)를 출간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YWCA 회보에 실린 같은 제목의 연재글을 엮은 것으로, 신·구약에 나오는 20여 명의 여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윤보 김기창 선생의 '사마리아 여인', 피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막달라 마리아', 자넷 세프너의 '슬로브하트의 딸들' 등 각각의 편지마다 삽입된 명화는 보는 재미를 더한다. <성서 속 여성이 보내온 편지>는 서울YWCA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속초YWCA

장은아 간사

살림돌보미 양성교육



속초YWCA고령자인재은행은 11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살림돌보미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체계적인 기사서비스 제공 및 청소, 세탁, 정리수납, 요리 등 10시간의 교육과정에 총 15명이 수료했다. 속초YWCA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회원YWCA 소식

원주YWCA

정은영 간사

성폭력 예방 인형극과 교육



원주YWCA는 10월 한 달 간 원주 지역 어린이집 원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인형극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와 성인지교육을 진행했다.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인천YWCA

박희은 간사

창립 50주년 기념식



인천YWCA는 10월 13일(화) 오후 3시, 인천YWCA 구월동 회관 강당에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회원 및 내빈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와 감사의 50년 변화와 감동의 100년'을 주제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부 기념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50년의 발자취를 영상에 담아 은혜와 감사의 지난 시간을 나누고, 변화와 감동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정의·평화·생명·돌봄의 여성운동 실천을 다짐했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열화상 장비 기증 받아

춘천YWCA는 11월 15일(일) (주)글로벌강원무역(한상운 대표)로부터 코로나19 발열 체크를 위한 열화상 장비를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장비는 춘천YWCA는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서부지역

군산YWCA

신하은 간사

창립 1주년 기념 회원 특강



군산YWCA는 창립 1주년(11.12)을 기념해 11월 17일(화) 지하공연장에서 '나부터 행복하기'라는 주제로 회원 특강을 열었다. 김완순 소장(군산부부가족상담연구소)의 강의를 통해 힘든 시기에 나를 먼저 사랑하면서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산YWCA는 지역사회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힘을 공급하는 시민단체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



남원YWCA와 통합상담소는 10월 14일(수) 남원제일고등학교 정문에서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원시 아동·여성안전 연대원 50여 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데이트폭력에 관한 OX퀴즈를 진행하여 공감대를 조성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사단법인 목포YWCA 창립(발기인)총회



목포YWCA는 11월 20일(금) 회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목포YWCA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정이숙 목포Y회장의 총회사를 시작으로 원영희 연합회 회장의 격려사, 창립 경과보고 및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심의, 출연재산 사항,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회장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 9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함으로써 사단법인을 출범했다. 73년의 긴 역사를 이어온 목포YWCA는 지역사회에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에 맞춰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로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건강한 요리 경연대회



서귀포YWCA는 10월 22일(목) 쿠팡버스에서 건강한 요리경연대회 '재주 좋은 밥상, 제주 담은 밥상'을 개최했다. 로컬푸드의 수요를 높이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대상자별 맞춤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되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8명이 현장경연을 벌였고 영양균형, 재료적합성, 독창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대

회에서 수상한 요리 레시피는 향후 쿠팡버스 식생활교육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YWCA

신정옥 간사

사단법인 순천YWCA 창립(발기인)총회 개최



순천YWCA는 11월 9일(월) 사단법인 순천YWCA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김선숙 회장의 법인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 설명, 인사말씀에 이어 원영희 연합회 회장의 격려사, 정관심의, 임원선출 등 사단법인이 갖추어야 할 창립(발기인)총회의 주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순천YWCA는 사단법인 창립(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 있는 시민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돌봄과살림 간병사 보수교육



익산YWCA는 11월 3일(화) 돌봄과살림 간병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오현자 익산Y 국장이 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업무 수행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1기 방애인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전주YWCA는 11월 6일(금) 회관에서 1기 방애인장학생 장학금(상금 일백만원) 수여식을 진행했다. 전주YWCA는 故방애인선



생의 뜻을 이어 청(소)년 리더십 발굴과 교육 지원을 위해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9월 방애인장학사업위원회를 출범했다. 1기 방애인장학생은 박민정 학생(전주대 사회복지학과 2년 재학)이 선발되었다. 향후 방애인장학사업위원회는 차세대 여성지도력을 발굴해낼 수 있는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한부모 자조모임



제주YWCA는 삼성전자와 사회복지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1월 21일(토) 도내 청소년한부모와 일반한부모 가정 35명을 대상으로 뽀로로테마파크와 한림동내코순두부에서 자조모임을 진행했다. 한부모들의 만남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사회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제주YWCA는 어린나이에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도내 청소년 한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중부지역

논산YWCA 조은숙 주임

후원의 밤 'YWCA와 함께하는 지역 상생 카페'

논산YWCA는 12월 1일(화)부터 10일(화)까지 열흘 간 후원의 밤 행사 'YWCA와 함께하는 지역 상생 카페'를 진행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현실에 위로와 공감으로 지역사회를 응원하고 시



민운동을 이어가기 위하여 커피 한잔으로 따뜻함을 나누고자 했다. 매년 진행하는 후원의 밤은 시민운동과 청소년 장학금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올해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였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대전YWCA 카페 개소식



대전YWCA는 YWCA 운동성 확장을 위한 대전Y카페(유성구 문지동 씨크릿우먼 사옥1층)를 시작하며 10월 29일(목) 개소식 및 개소예배를 진행하였다. 1946년 시작한 대전YWCA 운동이 대전 유성으로 발을 넓혀 유성구민에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가가고자 한다. 대전Y카페는 보드게임교육, 진로코칭, 직종설명회, 1일특강, 부부만족도상담, MBTI검사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들이 실생활에서 Y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종YWCA 양유정 간사

'복살롱 다독' 독서모임

세종YWCA 세종시문화재단과 함께 11월 5일(목)부터 12월 10일(목)까지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복살롱 다독' 독서모임을 진행했다. 첫날 개강식에서는 김광희 세종Y회장, 최영희 팀장(세종시문화재단)의 인사와 강소금 작가 소개, 박미숙 대표의 '문화 다양성 알기' 특강 등을 진행했다. '복살롱 다독'은 책을 읽고 내면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인문학 책임기 모임으로 다양한 생각



과 경험을 토대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나트륨·당류 줄이기 청소년 교육



제천YWCA는 9월,10월 3차례에 걸쳐 제천디지털고등학교 1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교육을 진행하였다. 당, 나트륨, 카페인에 대한 이론교육, 단맛비교, 단맛 증독 자가진단, 소떡소떡 만들기 실습을 통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소금과 설탕을 먹고 있는지를 알리고 과잉섭취로 인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나트륨·당 섭취를 줄이는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천안YWCA곽효정 간사

원·더·풀 청년희망세상 지원대회



천안YWCA는 12월 22일(화) '원·더·풀 청년희망세상 지원대회'를 개최했다. 1부는 온라인 '취업진로설계를 위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으로 진로설계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연이어 2부 '원·더·풀 청년희망세상 지원대회'에 청년 10여

명과 천안YWCA지원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이 지역, 환경, 경제, 교육, 인권, 성평등,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이슈를 발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YWCA 한기연 간사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워크숍



청주YWCA는 11월 17일(화)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워크숍을 개최했다. 청주시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청주시 에너지정보 검색, 에너지전환도시 청주의 미래 상상해보기, 정책 제안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청주의 에너지시민 50여 명과 행정, 시의회가 함께한 가운데, 지역에너지계획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부터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여 에너지시민 문화를 조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충주YWCA 이에림 간사

창립 및 성탄 감사예배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충주YWCA는 12월 18일(금) 자원·실무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및 성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정의·평화·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뜻을 품은 충주YWCA'라는 주제로 창립 감사와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 박영옥 회장은 "35살은 사람의 나이로 청년이기에 우리 충주YWCA가 청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0 월간 <한국YWCA> 목차 색인

■ 한국YWCA 100대 보물찾기

제목	필자	월	쪽
YWCA 총회		1·2	
IMF 긴급 상황 사회운동: 기독교정신운동으로 '모든 고통을 함께'하는 YWCA		3·4	
아시아지역 환경회의 '여성, 환경과 지구의 조화'		5·6	
청년YWCA <명상과 기도>: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년들에게 새로운 생의 양식을 갖도록 돕다"		9·10	
이웃과 함께한 YWCA 성탄		11·12	

■ 이달의 생각

제목	필자	월	쪽
'GO 100 YWCA' 기독교 여성 운동체로 거듭나야	한영수	12	
18세 선거권, 이제 시작이다	오은지	3·4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	이수진	5·6	
신임회장 인사말: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갑시다!	원영희	7·8	4
사랑한다면 Y처럼	조은영	9·10	
2020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이은영	11·12	

■ 말씀묵상

제목	필자	월	쪽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김민지	12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편집실	3·4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편집실	5·6	
정기총회 기도문: 정의, 평화, 생명 사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경애	7·8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편집실	9·10	
성탄예배: 정의 평화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김진희	11·12	

■ 특집

제목	필자	월	쪽
2020 회원YWCA 정기총회	편집실	12	14
회원YWCA 신임회장·5부지역위원장 소개	편집실	12	18
코로나 쇼크 시대	최강석	3·4	06
코로나19 사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태	3·4	08
팬데믹 시기,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이은영	3·4	10
코로나19 현장 한 가운데, 대구YWCA	박선	3·4	12
전국 회원YWCA 코로나19 대응활동	편집실	3·4	14
YWCA 애프터유 캠페인	편집실	3·4	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생명공동체로의 회복	이종관	5·6	06
YWCA,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편집실	5·6	09
2020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현장	편집실	7·8	06
신임 회장단 소개	편집실	7·8	07
신임 임원단 소개	편집실	7·8	08
신임 공천위원·실행위원 소개	편집실	7·8	09
감사 인사: 임기 마친 실행위원들께	편집실	7·8	14
YWCA아카이브 오픈: YWCA를 기록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다	윤수정	9·10	06
한국YWCA 초기역사·지역YWCA 조직	편집실	9·10	10
YWCA 한민족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홀로 걷는 평화순례	최수산나	9·10	12
사진으로 보는 홀로 걷는 평화순례	편집실	9·10	14
변화를 향한 한 발자국: 회원YWCA 재구조화, 지역법인 탄생	한영수	11·12	6
변화를 향한 한 발자국: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편집실	11·12	8
변화를 향한 한 발자국: 한국YWCA연합회 신뢰관 입주	편집실	11·12	10
2020 한국YWCA 20대 뉴스	편집실	11·12	12

■ 기획

제목	필자	월	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은경	12	06
한국YWCA 정책 제안	편집실	12	08
YWCA 유권자 선언	편집실	12	12
YWCA 2020 총선 가이드라인	편집실	12	13
남녀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와 동일임금의 날 운동	김은경	5·6	13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은 국정과제다	김난주	5·6	16
YWCA 댄스챌린지 온라인 캠페인	편집실	5·6	19
정책교육 탈핵·탈핵반대 가짜뉴스 팩트체크	김해창	5·6	22
정책교육 성평등: 이 시대의 페미니즘을 읽다	백소영	5·6	24
정책교육 평화·통일: 평화협정과 비핵시대	정옥식	5·6	26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성과 남북관계 전망	임을출	7·8	18
근대 기독교사를 통해 보는 동일 한반도의 기독교 역할	양현혜	7·8	20
평화협정, 왜 필요한가	서보혁	7·8	22
YWCA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최수산나	7·8	24

■ 칼럼

제목	필자	월	쪽
바이러스, 이번이 끝이 아니다	강양구	12	20
탈핵 에너지 전환과 자립사회	이진형	12	22
2020년, 한반도 평화 원년의 해로	최수산나	12	24
북경선언 25주년, 여성운동 회고와 전망	마정윤	12	26
미디어 리더러시	김기태	12	28
대한민국에서 비건으로 살아남기	대학·청년Y	12	30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입구와 출구는 같아	김현우	3·4	20
디지털 성착취를 끊어낼 행동하는 사유를 위하여	김보화	3·4	23
한국인 디아스포라 '조선학교'를 바로 보자	최수산나	3·4	26
나무보다 숲을 보는 언론을 기대하며	김하정	3·4	28

n번방의 두려움	대학·청년Y 소통국	3·4	30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가야 할 길	이윤숙	5·6	28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최수산나	5·6	3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김은주	5·6	32
여성을 겨냥한 성착취는 진공 속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이지원	5·6	34
'데이터 3법'이 놓친 것들	오병일	5·6	36
내 인생이 잠깐 일시정지 된 느낌이야	대학·청년Y	5·6	38
차별금지법안 국회 발의	한상희	7·8	26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린뉴딜인가	이윤숙	7·8	28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법·정책 과제	나영	7·8	30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 보도와 사회적 갈등	김수아	7·8	32
MBTI 대유행	대학·청년Y	7·8	3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관계	고유경	9·10	18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육식의 선택	이윤숙	9·10	20
사진으로 보는 '전국동시다발기후위기비상행동'	편집실	9·10	22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김난주	9·10	24
사회적연대에 기초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	안정희	9·10	26
유튜브 그리고 가짜뉴스	김준경	9·10	28
'코로나블루' 부쉬버려!	대학·청년Y	9·10	30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보호법 입법을 앞두고	표대중	11·12	30
2050탄소중립, 과감한 감축행동과 사회전환 전제되어야	민정희	11·12	32
한반도 평화체제와 여성참여	김정수	11·12	34
소셜 딜레마: 기술이 아닌 우리에게 달렸다	김은주	11·12	36
2021년 트렌드를 분석하다	대학·청년Y	11·12	38

■ 인터뷰

제목	필자	월	쪽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사람과 공간의 연결로 공동체를 복원하다	편집실	7-8	15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역사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편집실	9-10	08
김은경 목사: 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집실	11-12	44

■ 이달의 현장

제목	필자	월	쪽
Y-틴 전국협의회	오은지	12	32
제19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이은하·김예지	12	34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	김수진	3-4	32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	문윤희	3-4	33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	최지영	3-4	36
YWCA 사순절 캠페인	김은영	3-4	38
총선대응 YWCA 유권자 온라인 캠페인	연합회 중점운동국	3-4	39
강남역험오범피 4주기 서울YWCA 예배	김예리	5-6	40
광주YWCA 제26회 오월Y미인포럼	편집실	5-6	42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여진경	5-6	44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이은영	7-8	36
지역에서 페미니즘하기, 가능할까?	신하은	7-8	38
2020 온라인 아시아YWCA지역회의	김은영	7-8	40
대전·대구·안산YWCA, 사단법인으로 재도약하다	조직혁신 지원국	9-10	32
키다리, 다함께 ZOOM IN!	천유란	9-10	34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장수빈	9-10	36
전남협의회, 지역 간 연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다	김은숙	9-10	38
YWCA성폭력시설장위크숍	편집실	9-10	39

■ 이달의 포커스

제목	필자	월	쪽
기후위기와 농민기본소득	차흥도	9-10	40
가장 첫 여성부총회장 당선 가능성의 문을 열다	김미희	11-12	42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제목	필자	월	쪽
영화 <미안해요, 리카>	이윤숙	12	37
영화와 드라마, 전염병의 시대를 읽다	김민주	3-4	42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선한 영향력	오수경	5-6	45
21세기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원할까	오수경	7-8	41
쌈닭도 명랑하면 사랑받나요? <보건교사 안은영>	김신애	9-10	42
2020년 재난 서사 속의 연대와 구원	김선영	11-12	40

■ 논평 및 성명서

제목	필자	월	쪽
성명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한다		12	4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3-4	22
성명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강간문화'를 종식하라		3-4	25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한국YWCA 입장문		5-6	49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YWCA 성명서		5-6	표4
성명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7-8	45

재난적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된 자**
 - ① **대상질환**: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②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 ③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④ **의료비부담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15% 초과 발생시

■ 지원범위

- 지원 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및 외래 진료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 금액: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50%**를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
※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제외

- 미용·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 신청방법

-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홈페이지(www.nhis.or.kr)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에서 확인바랍니다. ▼ 🔍